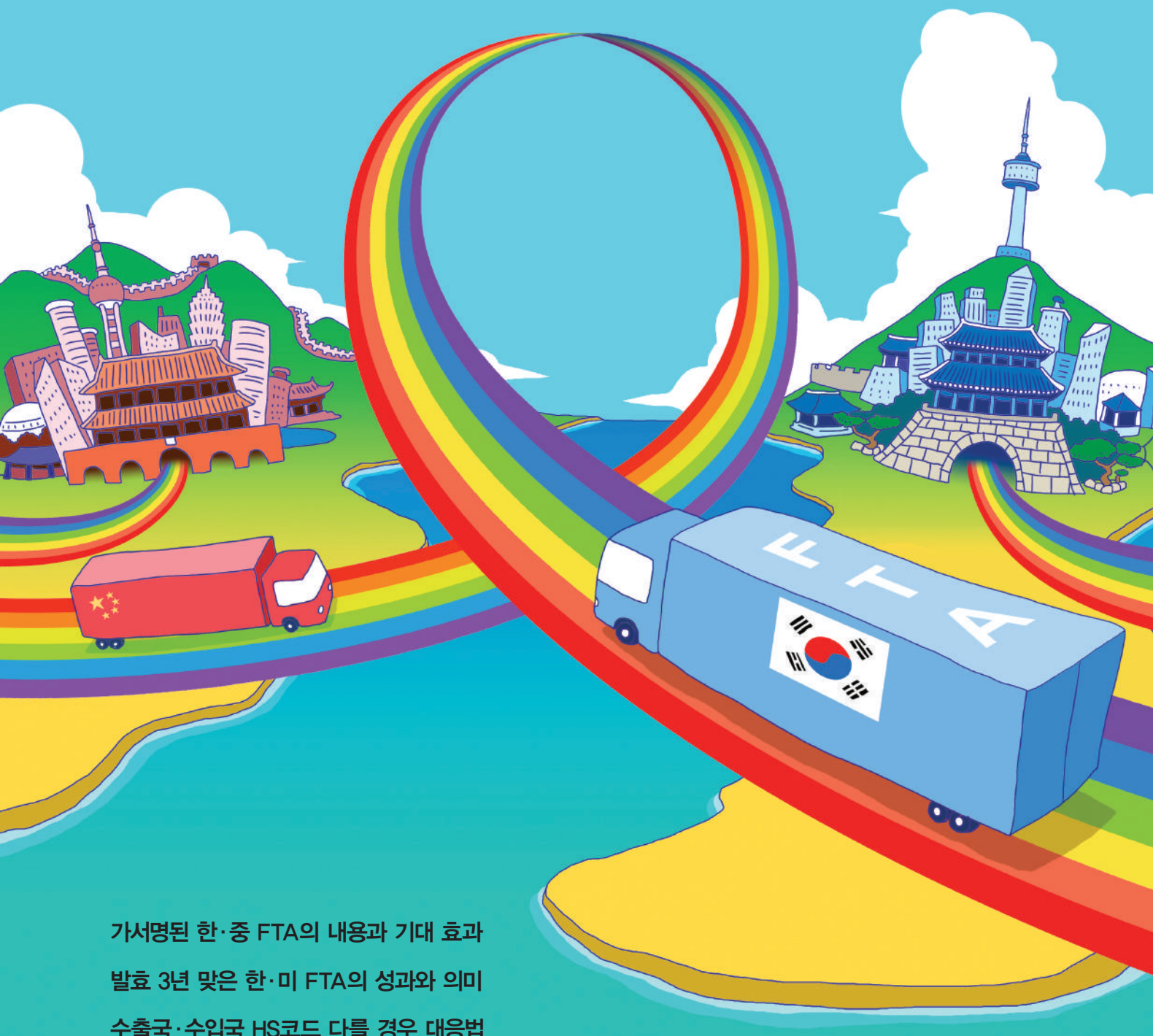
경제혁신 3년의 혁신, 3개년 계획 30년의 성장

함께하는 FTA

March 2015 vol. 34



가서명된 한·중 FTA의 내용과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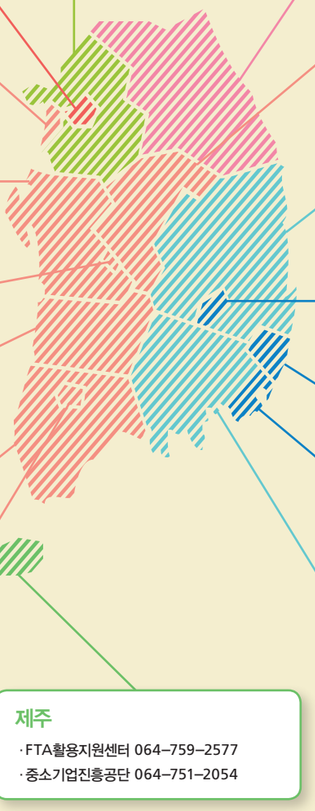
발효 3년 맞은 한·미 FTA의 성과와 의미

수출국·수입국 HS코드 다를 경우 대응법

전국 FTA 활용 지원기관 안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TA 활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FTA는 바로 중소기업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FTA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FTA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서울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국번 없이)1380
- 서울본부세관 02-510-1568
-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02-769-6947, 6957
  서울지역본부 02-6678-4115

경기
- FTA활용지원센터(경기 북부) 031-995-7480~1
- FTA활용지원센터(경기 남부) 031-546-6772, 6770
- 평택직할세관 031-8054-7042
- 중소기업진흥공단 031-259-7904

강원
- FTA활용지원센터 033-257-4071
- 중소기업진흥공단 033-259-7634

인천
- FTA활용지원센터 032-810-2836
- 인천경기본부세관 032-452-3163
- 중소기업진흥공단 032-450-0533

충북
- FTA활용지원센터 043-229-2729, 2722
- 중소기업진흥공단 043-230-6833

충남
- FTA활용지원센터 041-539-4581
- 중소기업진흥공단 041-621-3675

경북
- FTA활용지원센터 054-454-6601(134)
- 중소기업진흥공단 054-476-9312

대전
- FTA활용지원센터 042-480-3045, 3076
- 중소기업진흥공단 042-866-0153

대구
- FTA활용지원센터 053-222-3111~2
- 대구경북본부세관 053-230-5251
- 중소기업진흥공단 053-601-5262

전북
- FTA활용지원센터 063-711-2047, 2045
- 중소기업진흥공단 063-210-9911

울산
- 울산FTA활용지원센터 052-287-3060~1
- 중소기업진흥공단 052-703-1132

전남
- FTA활용지원센터 061-288-3831
- 중소기업진흥공단 061-280-8040

부산
- 부산FTA활용지원센터 051-990-7125
- 부산경남본부세관 051-620-6637
- 중소기업진흥공단 051-630-7404

광주
- FTA활용지원센터 062-350-5863
- 광주전라본부세관 062-975-8051
- 중소기업진흥공단 062-600-3051

제주
- FTA활용지원센터 064-759-2577
- 중소기업진흥공단 064-751-2054

경남
- 경남FTA활용지원센터 055-210-3043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212-1373

글 이진원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마이사와 타츠야(米澤龍也) 전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연구원

"한·중·일 3국 협력을 위해 쭈욱 힘쓰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함께하는 FTA'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마이사와 타츠야 씨(35)를 인터뷰한 것은 그가 3월 일본으로 귀국하기 때문이었다. 마이사와 씨는 2012년 1월부터 2105년 2월까지 3년 넘게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특히 한·중·일 FTA와 관련해 사무총장의 기고를 요청할 때 믿음직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었다. 물론 그가 한국말에 능숙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본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그가 한국에 관심을 가진 것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할 때였다. 아시아계라는 동질성 때문에 한국학생들과 유난히 친하게 지내던 그는 어느 날 농담 삼아 친구가 던진 "너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죽였다"라는 말에 '충격(그의 표현에 의하면)'을 받고 한일 간의 과거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국제관계를 전공함에도 바로 옆 나라의 일을 너무 몰랐다는 학자적 자존심도 발동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한국정치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공부를 계속했다. 이런 인연은 국제기구인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으로 쭉 이어졌다. "한국에 대한 관심에 이어 중국도 새롭게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세 나라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호기심이 생겨나면서 재밌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웠지만, 그는 일본에서의 박사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귀국이라는 큰 결심을 했다.

그에 따르면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일본 학자들은 자국보다 앞선 한국의 FTA 전략을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좋은 참고 자료로 '함께하는 FTA'를 소개해 줬다고 한다. "한국의 FTA 전략이 깔끔하게 잘 정리돼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자리를 빌어 마이사와 씨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contents

March 2015 vol. 34

COVER STORY

2월 25일 한·중 FTA가 가서명되며 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해당 품목을 수출입하는 국내 기업들은 한 발 앞서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준비할 때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5년 3월 6일(통권 34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People

01 마이사와 타츠야(米澤龍也)
전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연구원

China Special

04 가서명된 한·중 FTA의 주요 내용과 의의
오광진 한국경제신문 중국전문기자

06 지상중계: 중국에서 通(통)하는
중국通(통) 주재원 과정(무역아카데미)

FTA Cartoon

08 또 하나의 기회! 한·중 FTA
안종만

Main Story

New FTAs of Korea in 2015

10 한·호주 FTA 발효로 본 유망분야 및 기대효과
이지원 KOTRA 시드니무역관 과장

12 한·캐나다 FTA 발효에 따른 활용방안
강영진 KOTRA 밴쿠버무역관장

14 뉴질랜드 시장 현황 및 FTA로 인한 기회
김락곤 KOTRA 오클랜드 무역관장

15 한·베트남 FTA와 지식재산권 보호
이동현 KOTRA 호치민무역관 과장

Power Interview

16 변영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단장

3th Anniversary KOR-US FTA Special

18 발효 3주년 한·미 FTA의 성과와 의미
손수석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20 한·미 FTA 3주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

FTA Lounge

22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광진윈텍(최우수상 공동수상)

24 CJ제일제당의 종자 개발 현장 탐방

26 FTA를 대비하는 지자체들의 한·중 대결
박현용 인포마스터 컨설턴트

FTA Study

28 자유무역의 역사:
⑭복수국 간 서비스협정(TISA)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30 세계의 FTA: ⑭콜롬비아의 FTA
이혜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32 HS품목분류표의 기본구조
이민선 관세사

34 FTA별 개성공단 인정 방식 이해하기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36 실전 FTA 활용 노하우:
수입국과 HS코드 상이 시 대처방법
유영준 관세사(FTA무역종합지원센터 활용지원실)

Art & Culture

38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⑤T. S. 엘리엇의 '황무지'

40 한국과 닮은 꼴 베트남, 매력적 전통의 뉴질랜드
이유준 객원기자

FTA News

42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발표 등

Information

44 FTA 정보/독자의 소리

글 오광진 한국경제신문 중국전문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가서명된 한·중 FTA의 주요 내용과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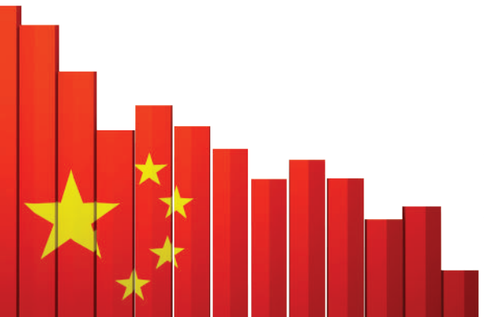
개성공단 활용도 커지고, 서비스산업 기회 열리고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10일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 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지난 2월 25일 가서명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에서 타결된 공산품 양허안을 공식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공개했다. 이젠 FTA 이후 기회를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FOCUS

한·중 FTA 가서명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2014년 11월 10일) 이후, 양국 정부 대표단은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월 25일(수) 오전 한·중 FTA 가서명을 완료(외교 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다.



가서명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품목 확대를 비롯해 건설·법률·여행·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시장 개방에서 큰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메이드 인 개성'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미 FTA 등과 달리 한·중 FTA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해당 품목에 한해 FTA 발효 직후부터 특혜관세를 부여키로 했다.

기존 270개 개성공단 인정품목에 40개 추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한·중 FTA 가서명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에서 125개 업체가 270개 품목을 생산하는데, 업체들의 희망품목을 더해 310개 품목을 양허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 협상 타결 시보다 40개 늘어난 것으로, 이는 양측이 합의를 통해 품목을 변경할 수 있어 사실상 품목제한이 없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앞서 체결된 한·EU FTA에서는 267개, 한·인도 FTA는 108개, ASEAN,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에서는 각 100개인 것과 비교하면 역대 FTA 중 개성공단에 가장 우호적인 협정이다.

이로써 개성공단이 중국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개성공단에 중국 등 다른 나라 기업의 유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 기업이 진출하면 북한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데 큰 부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중 양국은 역외가공위원회를 만들어 제2의 개성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북한과 중국이 압록강 접경지역에서 공동으로 추진 중인 황금평경제특구나 북한 나진선봉특구가 한·중 FTA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중 FTA가 북한 개방을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중소기업계에선 나진·선봉지역이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국경을 맞댄 물류 요충지라는 점에서 제2개성공단의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로 꼽는다. 중국과 러시아도 나진선봉과 접경한 지역에서 합작 경제특구를 추진 중이다. 특히 한국정부와 기업이 북·러 간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회적 참여를 추진하면서 실사가 진행되는 등 나진선봉은 이미 새로운 경협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서비스산업도 한·중 FTA로 한국 기업이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한국 로펌은 중국 로펌과 공동으로 상하이자유무역지구 내 사무소를 설치해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자문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상하이자유무역지구에 설립한 한국 건설기업은 한국 측 지분이 50%를 넘지 않더라도 현지 합작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된다. 통신시장에서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규제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협정문에 명시했다. 한·중 공동제작 영화에서 한국 측의 재정 및 기술적 기여도가 20%를 넘으면 중국의 스크린 쿼터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월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에게 가서명된 한·중 FTA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국의 법률·환경·여행 등 서비스업 진출 기회

폐수·고형물처리·배기가스정화·소음저감·위생서비스 등 5개 환경분야에선 중국 내에 한국 자본으로 독자기업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스모그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대적인 환경보호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급팽창하는 시장이지만 외국기업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 FTA 체결로 한국기업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한국 여행사가 중국 현지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떠나는 여행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관광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아웃바운드 시장을 외국 여행사에 개방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미국, 일본, 독일 여행사 한 개씩만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 여행사의 중국 아웃바운드 시장 진출로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해도 수혜 여행사는 대부분 한국에 진출한 중국계 여행사인 현실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비스 분야 개방이 한국기업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알리페이, 텐페이 등 중국의 전자결제업체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면 국내 소매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미 한국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출한 알리페이의 공격적인 시장 공략이 예상된다. 중국은 신용카드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뎌 모바일 결제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보다 강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소비자가 한국의 온라인쇼핑몰에 들어가 한국 상품을 구입하는 역직구를 활성화하려면 소액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FTA에서는 성사되지 못했다. 지금은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세액 기준으로 50위안(약 8,700원) 이하일 때만 무관세다. 한국 정부는 이번 FTA 협상에서 중국 측에 200달러(약 22만 원)이하 소액제품에 대해 비과세를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현행 관세법상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관세장벽 외에도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비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한 후속 협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서비스분야의 후속협상은 협정 발효 후 2년 내 협상을 개시하고 2년 내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 때 제외 품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중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서비스 분야의 네거티브 방식 도입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글 김보람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지상중계: 중국에서 通(통)하는 중국通(통) 주재원 과정(무역아카데미)

현지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담에 귀 '쫑긋'

한·중 FTA 체결 전부터 비즈니스 세계에서 중국은 이미 대세였다. 무역아카데미에서 4일간 종일 진행되는 '중국에서 통하는 중국통 주재원 과정'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업종에서 실무자 또는 대표이사 50명이 참석했다. 중국 주재 10년 이상의 베테랑들이 전하는 중국 비즈니스 노하우에 모두들 귀가 쫑긋한 모습이었다. 그 중 인상적인 일부 내용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FOCUS

중국에서 通하는 중국通 주재원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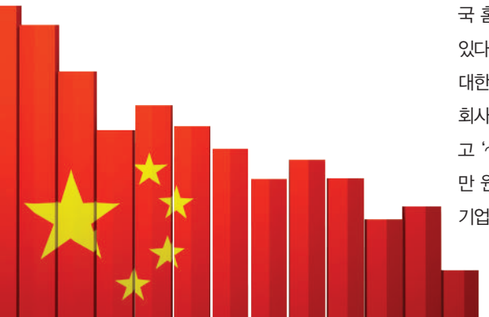
다음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4월 13,15,17,20,22,24일 (월,수,금. 2주간) 13~18시(총 30시간)
- 장소: 코엑스 4층 무역아카데미
- 문의: 02-6000-5222

※일시·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업명으로 기업 소재지·업종·규모 등 알 수 있어

중국 왕서방 찾기와 검증 방법(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

'왕서방'이란 중국에서 어느 정도 규모와 신용을 가진 업체들을 말한다. 왕서방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명함으로 회사의 규모를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해본다. 중국의 기업 명칭은 '지역명+회사명+업종+기업형태'로 정해진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 모든 기업은 국가 또는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상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기초정보를 관리국 홈페이지에서 즉시 조사할 수 있다. 등록 시 기업 이름도 심사하는데 명명 방식이 공식화되어 있다. 기업명칭에 '중국(中國)' '중화(中華)' '국제(國際)'가 포함된 기업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기업들로, 중국중화집단공사, 중국은행, 중국이동통신집단공사 등이 있다. 이 명칭들은 일반 회사들은 넣을 수 없고 국영기업만 가능하다. 회사 명칭에 '중국' 또는 대도시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경무유한공사(經貿有限公司), ~역유한공사(貿有限公司)'로 끝난다면 자본금 규모가 1,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업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 이름에 '집단공사(集團公司)'가 있으면 산하 기업을 거느린 그룹사로, 이 역시 회사 이름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공고공사(控股公司)'라는 명칭은 지주사를 의미하며 자본금 규모가 크므로 신용도가 높은 기업으로 볼 수 있다. '고빈유한공사(股份有限公司)'는 주식회사를 뜻하며,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름만으로는 신뢰할 만하다.



중국 기업명 정하는 공식

지역명 + 사명 + 업종 + 조직형태

※중국의 모든 기업은 국가 또는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름도 심사 대상으로 위 공식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

추가적으로 신용도를 조사하고 싶다면 신용조사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비용은 '○○국제기업신용자순유한공사'의 경우 일반 신용조사는 135~270달러, 전문신용조사보고서는 325~775달러 수준이다.

온라인 홍보, '미디어 믹스' 해야 효과적

중국 온라인 마케팅 기업 및 활용(이철호 엠플러스아시아 대표)

중국은 인구가 13억이 넘어 대중매체 광고 단가가 한국과 차원이 다르다. 4대 패션 매체로 통하는 엘르, 보그, 코스모폴리탄, 바자의 한 면 광고는 한국의 경우 250만~350만 원이지만, 중국에선 2,000만~3,000만 원이다. 한국의 발행 부수가 매체 당 평균 5만 부라면 중국은 80만~160만 부다. 그러나 적정한 온라인 마케팅은 약 900만 원 수준에서 할 수 있다. 중국 온라인매체는 바이두 블로그/카페, 바이두 지식인, 바이두 검색엔진, 바이두 온라인백과, 파워 웨이보, 비디오 PR, 온라인 기사검색 PR 등이 있는데, 이들 중 어느 하나만 하면 효과가 없고 적절하게 '미디어 믹스'를 해야 효과가 커진다. 한국과 동일하게 온라인 검색 시 광고주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사 등 콘텐츠가 많이 노출될수록 신뢰감이 상승된다.

구글에 해당하는 바이두(百度)의 키워드 검색광고는 온라인 마케팅의 기초다. 바이두 지식인의 경우 답변자의 레벨에 따라 상위 노출 여부가 다르므로 레벨 높은 사람과 제휴를 추천한다. 온라인 PR의 경우 언론사 기사를 통해 노출되는 것으로, 유사제품이 많은 중국에서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언론사에 꾸준히 보도자료를 보낼 필요가 있다. 바이두백과는 3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한 번 등록하면 쭉 쓸 수 있고, 바이두 검색에서 회사를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으므로 추천한다. 웨이보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결합된 형태로 '시나웨이보(新浪微博)'는 중국 최대의 소셜네트워크다. 특히 파워웨이보의 경우 팬수가 2,000만 명이 넘는다. 일반적으로 팬이 50만 명이 넘는 파워웨이보는 포스팅 가격이 100만 원을 넘는다.

첫 달 300만 원 매출이 1년 만에 월 1억 원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실전사례: 화장품(권기현 BNH코스메틱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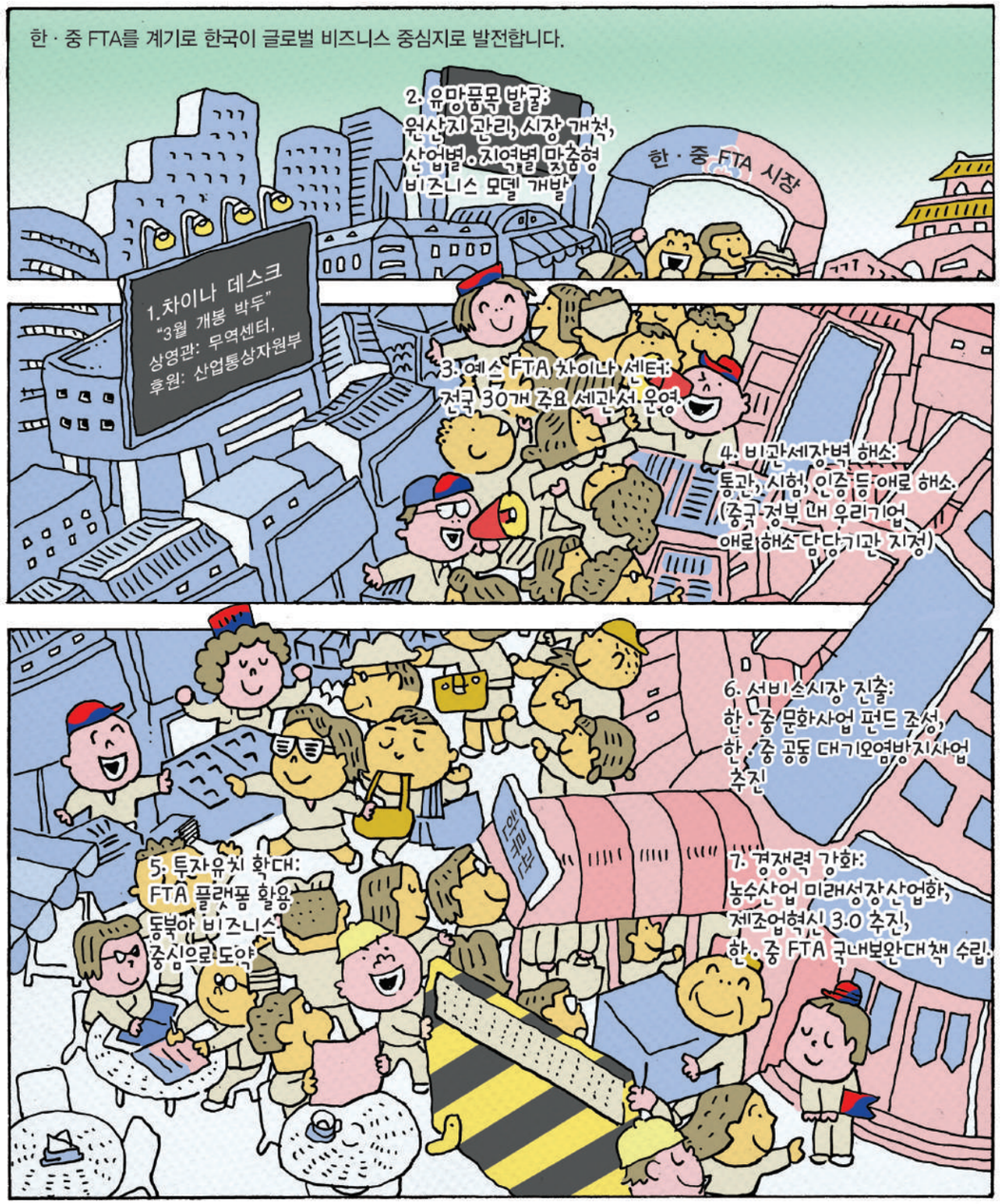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사가 어려울 때다. 어떤 중년여성이 전화해 중국에 화장품을 팔고 싶다며 물량을 요청했다. 100% 선입금 조건이었다. 회사로선 손해 볼 게 없어 수락했다. 그런데 첫 달 300만 원치 물건을 가져가더니 1년 만에 월 1억 원치를 사가는 것이 아닌가. '대체 중국시장이 어떤 시장이길래'라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마침 상하이에서 화장품 박람회가 열려 부스를 설치하고 참가했다. 일단 박람회 규모가 너무 커서 하루에 다 보질 못했다. 그리고 중국산 화장품의 품질이 너무 조악했다. 스킨 병에 로션이 담겨 있기도 했다. '한 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니던 회사가 망하고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바이어들과의 신뢰에 금이 가기도 했다. 거래를 계속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중국에서 또 다른 바이어로부터 전화가 왔다. "당신 사정 다 알고 있으니 나와 거래하자"는 것이 아닌가? 바로 중국으로 날라갔다. 앳띤 청년이 나왔다. "화장품 몇 년이나 팔았냐"고 했더니 '17년'이라고 했다. 17살 때부터 화장품을 팔면서 거상이 된 것이다. 지금 중국 화장품 판매상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을 공급받으려 난리다. 덕분에 쓰러져 가던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다 살아났다.

다만,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이 상종가를 달리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그 뒤엔 무엇일 있을지 이제 고민해볼 때라고 생각한다.

카툰 안중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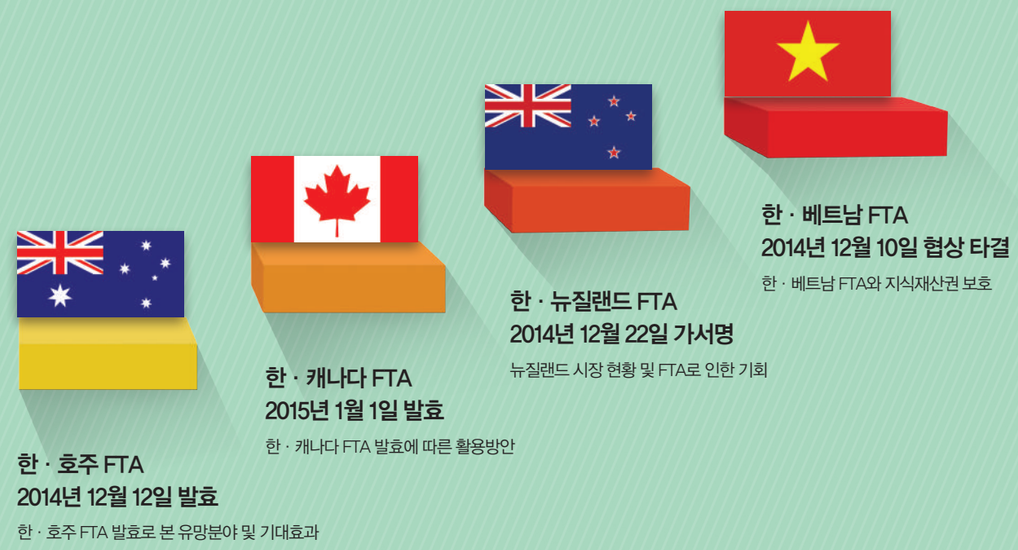
한·중 FTA 활용이 더욱 쉬어집니다!



※위 내용은 2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MAIN STORY

New FTAs of Korea in 2015



한 · 베트남 FTA
2014년 12월 10일 협상 타결

한 · 베트남 FTA와 지식재산권 보호

한 · 뉴질랜드 FTA
2014년 12월 22일 가서명

뉴질랜드 시장 현황 및 FTA로 인한 기회

한 · 캐나다 FTA
2015년 1월 1일 발효

한 · 캐나다 FTA 발효에 따른 활용방안

한 · 호주 FTA
2014년 12월 12일 발효

한 · 호주 FTA 발효로 본 유망분야 및 기대효과

글 이지원 KOTRA 시드니무역관 과장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호주 FTA 발효로 본 유망분야 및 기대효과

호주측 관심 증가, 현지 한국업체들도 기대

한·호주 FTA가 2014년 12월 12일 정식 발효됐다. 이로써 한국은 호주로부터 전략자원을 비롯한 철강, 자동차, 에너지등 주요 수출품의 안정적인 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호주에 자동차와 첨단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는 이상적인 교역파트너로 발전해 갈 것이다.

유망 수출 분야

통신, 전기·전자, 건축자재 등 기대

한·호주 FTA 정식 발효에 따라 최근 KOTRA 시드니무역관에는 호주에 어떤 상품의 수출이 유망한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특히, 관세가 폐지되거나 인하되는 상품들에 대한 수출 문의가 많다. 이에 한·호 FTA 체결 내용과 주요바이어 및 현지진출기업, 현지 전문가 의견을 종합 파악해 다음과 같이 한·호주 수출 유망 분야를 정리해보았다.

통신 호주 정부의 국가광대역통신망 구축 프로젝트(NBN: National Broadband Network)로 인해 광섬유케이블, 광통신 부품 등 통신 산업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산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나, FTA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한국제품으로 수입선 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찌감치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보편화된 한국으로써는 단순히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관련 제품 수출 효과에 국한되지 않고 고속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상품으로 호주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전자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품목으로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화된 전력케이블에 대한 교체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호주 대규모 프로젝트에 의무 사용이 요구되는 공기청정기 필터, 산업용에서 소비재용까지 다양한 쓰임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납축전지 등은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다. 중국, 동남아 등과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전제품의 경우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5%의 관세가 즉시철폐돼 향후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한·호주 FTA 정식 발효에 따라 최근 KOTRA 시드니무역관에는 호주에 어떤 상품의 수출이 유망한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건축자재 현지 건설 경기 회복세로 관련 자재에 대한 수요가 동반 상승 중에 있다. 건설업, 식품가공산업(패키징)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 자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카펫 바닥재를 선호하지 않는 이민자들의 증가와 카펫 알레르기 발생 등의 이유로 PVC 바닥재를 선호하는 추세라 이에 특화된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다. 또한 원가 절감을 위해 못, 너트 등 산업용 금속제품에 대해 글로벌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어 이 또한 눈여겨볼만 하다.

석유화학 높은 인건비, 강성 노조 등 현지 제조업의 고비용 구조에 따라 석유화학 제품 수입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 동안 단열재 및 포장재로 사용되는 폴리스티렌의 수입량이 대폭 증가했으며, 계면활성제의 경우 현지 생산이 가정용에 국한돼 있어 산업용 제품의 진출 여지도 다분하다.

자동차 및 부품 포드, GM, 도요타 철수 등 현지 자동차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승용차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4인 가구당 2.28대)이며, 오히려 현지 공장 철수에 따라 자동차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완성차 메이커 판매량이 감소했으나 고유가의 여파로 소형차의 비중이 큰 현대차의 판매량은 3.1% 증가하는 등 현지에서 인기가 높아 FTA 관세철폐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 한류에 따라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 식품의 우수성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조성으로 향후 한국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천연재료를 소재로 한 음료와 인스턴트 누들 면(麵)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한·호주 FTA의 수혜가 상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회계, 이동통신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뿐만 아니라 양국간 투자기회의 증진 및 다양한 창의예술 교류, 지적재산권 보호 등 사회 전반에 있어 양국 교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상 미디어에 관한 상호 교류 및 공동제작에 대한 협력과 지원도 가능해져 앞으로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호주 측 반응

에너지·육류업계 환영, 섬유·의류계는 우려

한·호주 FTA 체결에 따라 각 산업별 협회, 유관기관 등과 면담을 통해 현지의 분위기를 살펴봤다. 호주의 에너지 관련 단체에서는 이번 FTA 체결을 적극 환영했다. 호주 에너지 자원의 대(對)한국 수출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스마트미터, 태양광, 에너지 절약 기술 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축육류산업조합에서도 반가운 기색을 표했다. 호주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되면, 한국의 소비자에게 보다 우수한 품질의 쇠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변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섬유·의류산업 단체의 경우 이미 호주 내 해외 경쟁사의 진출로 치열한 경쟁을 치루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자유 무역체제를 표방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호주 산업계의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 답했다. 일반소비재 관련 단체 역시 협회에 가입된 다수 기업이 현지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한·호주 FTA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기대 효과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져

요즘 현지 기업이나 한국의 수출·진출 기업들을 만나면 항상 "한·호주 FTA의 효과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지" 묻는다. 돌아오는 대답은 제각각이지만 한결같은 부분이 있다. 한·호주 FTA로 상호 간 관심이 높아졌으며 관세철폐 및 인하로 분명 가격경쟁력에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 그러나 호주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피부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이점이 많이 상쇄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기업인과 전문가들은 2분기로 들어서면서 양국 교류가 전년 대비 증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관세 인하로 중간 마진이 개선돼 수입처의 한국산 선호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현지 물류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적은 인구에 비해서 유통사가 담당해야 할 지역이 넓어 현지 수입사 및 유통사의 마진 개선은 실질적인 시장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Australia

글 강영진 KOTRA 밴쿠버무역관장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캐나다 FTA 발효에 따른 활용방안

'북미'지만 미국과 다른 소비성향·규제 주의해야

9년 6개월간 긴 협상을 거친 한·캐나다 FTA가 올해 1월 1일 발효됐다. 이번 FTA는 유·불리를 떠나 큰 사회경제적 이슈가 많지 않은 캐나다에서는 상당한 관심거리다. 일례로 최근 KOTRA 밴쿠버무역관에서 준비한 한·캐나다 FTA 관련 설명회에 현지 많은 기업인들이 참석했고, 무역관 방문이나 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보면 이번 FTA에 거는 기대가 작지 않은 것 같다.

한국과 캐나다 간 교류 역사는 짧지 않지만 이웃나라 큰 시장인 미국에 가려서인지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 내외(2014년 양국 교역 110억 달러), 누계 투자규모도 60억 달러 정도에 그치고 있다. GDP 1.8조 달러로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캐나다와 GDP 1.2조 달러로 세계 15위 경제대국인 양국 경제규모를 감안할 경우 미미한 수준이다. 양국 간 교역 품목도 한국에서는 캐나다로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등 공산품 위주로 수출하고 있고, 캐나다는 한국으로 유연탄, 알루미늄, 동광 등 자원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다. 이들 주요 제품이 전체 교역액의 60~70%를 차지하며 일부 품목에 편중돼 있다.

대미 의존이 큰 캐나다는 한·캐나다 FTA를 통해 아시아로의 새로운 수출 활로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양국 경제규모 대비 미미한 교역량 증가 기대

양국은 상호 발전 가능성이 높고 협력 분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여러 이유로 상호간 협력이 진척되지 않았다. 이제 한·캐나다 FTA로 양국 간의 협력이라는 출발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FTA를 통해 어떤 결과를 낼지는 오로지 우리의 준비 여하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협상 때보다 더 철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대미 의존이 큰 캐나다는 한·캐나다 FTA를 통해 아시아로의 새로운 수출 활로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가 한국산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한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세 배 가량 높기 때문에 한·캐나다 FTA 발효는 캐나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난 몇 년간 캐나다 농·수산 업체는 한·미 FTA와 한·EU FTA 이후 한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하락했다며 캐나다 또한 조속히 한국과의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캐나다는 미국, 호주 등 다른 국가에 비해 FTA 체결 지연 등으로 시장점유율이 많이 낮아진 상황으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자국산 제품 홍보에 보다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일례로 캐나다 에드 패스트(Ed Fast) 통상장관은 2월 초 100여 명의 대규모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해 캐나다산 육류, 해산물, 주류 등을 홍보하는데 직접 앞장선 바 있다.

특히, 농수축산물의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5월 서울식품전, 10월 부산국제수산전)에 관련업체를 대거 파견할 계획이다.

한국도 캐나다와의 FTA 발효를 계기로 FTA 권역을 북미대륙 전체로 확대하고 현재 캐나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등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의 시장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산 제품의 캐나다 내 시장점유율은 약 1.5%로 높지 않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캐나다와 FTA를 타결한 국가인 만큼 시장선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해 FTA 관련 정보와 적절한 대비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만큼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가 덜 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수적 소비성향…가격만으로 통하지 않는 시장

캐나다는 미국에 인접해 있어 많은 부분 미국과 유사하긴 하지만 미국과는 다른 규제와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증, 통관 등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다르다. 또한 동·서부에 따라 주요 산업과 특징이 다르고,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높으며, 실용적인 제품을 선호하고, 민족별 소비패턴이 상이한 캐나다만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우리의 강점을 살린 제품, 서비스 등을 부단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

가령 플랜트 기자재는 한국이 아시아의 다른 경쟁국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고 글로벌 브랜드의 유럽산에 비해서는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현지 발주처에서 선호하고 있다. 일반 소비재는 중국산이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안전이나 건강 등을 강조한 제품 프리미엄 전략이 필요하다. 현지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대기업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제품 이미지 제고 전략, 아시아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류스타 마케팅, 차별화된 제품 포장 및 디자인을 통한 고급화 등이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체결국이여서 현지 중견규모 이상의 유통업체는 미국으로 재수출이 가능하므로 양국 간 양호한 물류를 이용, 현지를 거점으로 한 미국 우회진출도 고려해볼만 하다. FTA 발효로 제품의 교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적교류도 활발해질 전망이어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진출도 적극 준비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는 인구가 적은 자원 대국이어서 그런지 매우 보수적이고 독과점적 성향을 띠고 있어 시장 진입이 결코 쉽지 않다.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고 바로 성사되는 시장이 아니다.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캐나다 시장은 밥을 지을 때 뜸을 드리듯 정성을 쏟아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장임을 명심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글 김락곤 KOTRA 오클랜드무역관장
사진 한국경제신문

뉴질랜드 시장 현황 및 FTA로 인한 기회

견고한 선진국시장…올해 성장률 3% 이상 전망

한·뉴질랜드 FTA가 2014년 12월 22일에 가서명됐다. 2010년 한차례 협상 결렬이 선언된 바 있었지만 다시 재개된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이익균형점을 찾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번 협정을 통한 교역 및 투자, 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New Zealand

낙농·식품 산업이 발전한 뉴질랜드의 특성을 고려해 이에 필요한 포장재나 기계설비 등이 FTA 유망 분야로 꼽히고 있다.

제조업이 부족해 대부분의 재화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뉴질랜드는 이미 관세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당장의 관세 인하 효과가 크지는 않겠지만,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이 주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재조명됨으로써 교역이 늘어날 것이라는 현지 반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1,800→3,000명)와 3개월 이상 취업제한 규정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근면하고 우수한 한국인의 채용을 늘리겠다는 서비스업계의 소리도 들려온다.

2014년 선진국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국가라며 '록스타 이코노미(Rock Star Economy)'라 불렸던 뉴질랜드는 실제로 전망치보다 높은 3.5% 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도 우유가격과 목재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서도 건설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인구 순유입과 소득 증가로 내수시장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며 3%이상 성장해 '록 솔리드 이코노미(Rock Solid Economy: 견고한 성장)'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건설시장 호황…중장비, 건축자재 등 유망

이처럼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뉴질랜드 시장을 이번 FTA 체결을 계기로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 우선, 뉴질랜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분야가 크라이스트처치 재건사업과 오클랜드 주택건설 등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설시장이다 보니, 건설중장비나 건축자재, 내외장재 등 관련 품목에 관심을 기울여 볼만 하다. 또한, 뉴질랜드가 낙농·식품 산업이 발전한 곳이다 보니 이에 필요한 포장재나 기계설비 등도 유망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인구유입 증가와 소득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로 인해 최근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들의 소싱 확대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적합한 기능성 제품들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유층이 주를 이루는 아시아 이민자 확대에 따른 한류 제품과 서비스 등도 유망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FTA를 계기로 투자처로서 뉴질랜드를 재인식할 필요도 있다. 2014년 말까지 한국의 대뉴질랜드 투자는 누적 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투자건수인 5,550건으로 나누면 평균 투자액은 90만 달러 정도로 이민 생계형 투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뉴질랜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농목축 원자재 활용형 투자, 영어권 선진국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형 투자, 농업 바이오 및 IT 등 창의적 기술 분야 투자가 우리기업에 적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 이동현 KOTRA 호치민무역관 과장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베트남 FTA와 지식재산권 보호

'상표 선출원' 원칙…선점 여부 확인 필수

베트남에서 한류는 베트남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우리 기업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는 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역설적으로 지재권 보호에는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문화한류를 넘어, 경제한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시장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진출만큼이나 지재권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중요함을 인지해야할 시점이다.

Vietnam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사례는 상표권 침해를 통한 위조 상품 유통부터 특허 침해,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하다. 상표의 무단 선등록은 피해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별도의 상업활동 없이도 5년까지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는 '상표 선출원' 원칙을 베트남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베트남 진출 이전에 이미 우리기업의 상표가 베트남에 등록됐거나, 심지어 거래 중인 협력업체 및 파트너사로부터 상표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어, 일단 등록이 되면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통계적으로도 2013년 한 해에만 1만4,000건의 위조상품이 적발됐고,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베트남 FTA로 지재권 보호 강화될 듯

상표에 비해 침해 사례는 많지 않지만, 우리기업의 기술 사용 이전계약 체결에 따른 특허 침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기술을 베트남 파트너에게 일정 기간 사용권을 부여하고, 기술사용료를 받는 기술사용 이전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기술보호조항 삽입과 함께 특허출원을 해야 침해에 따른 구제를 신청하기가 용이하다.

지재권 보호 조치 없이는 베트남 시장개척의 실익이 크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0일 호치민에서 열린 한국상품 전시 상담회 모습.

이외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침해는 저작권 침해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최신음악을 어렵지 않게, 인터넷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들을 수 있다. 베트남 건설회사에서 한국의 교량설계 프로그램을 정식버전을 구입하지 않고, 크랙(디지털 저작권 무력화) 버전을 버젓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기업이 베트남 시장진출 조사를 위해 잠재바이어 기업들을 방문한 결과 이 같은 현실을 알게 됐고, 지재권 보호 조치 없이는 베트남 시장개척의 실익이 크지 않음을 인지하기도 했다.

향후 베트남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한·베트남 FTA 등 다자간·양자간 무역협정 타결 및 발효를 앞두고, 국제 규범에 부응하기 위해 베트남 내 지재권 보호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과 소비시장의 성장의 속도를 감안할 때 상표·특허 침해 사례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베트남 FTA를 통해, 저작권·상표권·특허권 부분에서 WTO 지재권 협정 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유효한 구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변영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단장

차이나데스크 3월 개소…
한·중 FTA 효과 극대화할 것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 자리한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2월 21일로 개소 3주년을 맞았다.
센터는 FTA 관련 민관 유관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FTA 활용의 콘트롤타워다.
센터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변영만 단장으로부터 그간의 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케이티넷,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개소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센터의 간략한 소개와 그간의 변화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센터는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5일)를 계기로 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적 민관합동 지원기관으로 2012년 2월 21일 설립됐습니다. 현재 FTA활용전략실, FTA사후검증지원실, FTA제도개선실, FTA현장지원실로 총 4개실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FTA 활용 환경이 취약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FTA 활용 통합정보 제공, 맞춤형 컨설팅, 원산지관리 시스템 보급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기업들의 FTA 활용을 전방위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2013년 6월 24일에는 FTA 1380 콜센터를 개통했고, 한·미 FTA, 한·EU FTA가 본격화된 2013년 5월 15일 사후검증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후검증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한편 한·중 FTA 등 상담 수요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3월 중으로 FTA 1380 콜센터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요청을 하면 될까요? 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80을 누르면 센터의 전문가들(관세사, 원산지관리사, 원산지 시스템 전문가 등)과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홈페이지(fta1380.or.kr)를 통해 온라인 문의도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센터 관세사들(현장지원실 4명, 사후검증지원실 3명)이 방문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OK FTA(심화 컨설팅)'를 통해 8~12일(업무일) 간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발급, 증빙서류관리 등 전문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그간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센터 개소 후 지난해 말까지 총 2만6,690건의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하루 평균 37.4건입니다. 방문 컨설팅은 4,059건, OK FTA는 877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상담 내용을 보면 원산지증명 관련 내용이 39.0%, 품목분류 및 관세율 관련 내용이 19.1%, 원산지결정기준이 10.8%로 FTA 활용에 대한 문의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관세환급·통관에 대한 문의는 4.0%, 사후검증은 2.9%를 차지했습니다. 사후검증은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로, 사후검증지원센터 개소 이후 '사후검증 완전정복 매뉴얼'을 발간(2014년 6월 18일)하고 총 19차례의 사후검증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EU 등을 비롯한 주요 시장과의 FTA에 기업들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문의들이 많이 오나요? 그리고 센터 차원에서도 어떤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신규 FTA 체결이 늘어나며 새로운 FTA에 대한 질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체결·발효된 FTA에 대한 설명회 개최, 안내책자 발간,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한·EU FTA 등이 발효 3~4년을 넘기며 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무자가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총 6개(자동차 제동장치, 화장품, 화섬직물, 밸브, 완구제품, 밀폐용기) 품목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하고, 매뉴얼 핵심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3월 중 차이나데스크 개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설립 계기, 목적, 활동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중 FTA가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내에 '차이나데스크'를 신설해 한·중 FTA 활용에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중 FTA 활용절차 안내 및 홍보, 중국 시장동향 등 한·중 FTA 관련 정보 제공, FTA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 등 대중국 업무연계를 통한 일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분야별 수출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인력 파견(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한·중 FTA 활용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3층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조직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3월 중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FTA현장지원실도 17층에서 3층으로 옮겨 내방객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무역종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FTA를 성장 발판으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FTA를 활용하려는 국내 기업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늘 말하는 것이지만, FTA 체결이 수출이나 매출의 자동적인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기업 스스로 FTA를 기회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 및 발효하며 명실상부한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무역종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FTA를 성장 발판으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글 손수석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사진 한국경제신문

발효 3주년 한·미 FTA의 성과와 의미

우리경제에 '기회요인' 입증, 성과에 안주하기는 일러

금년 3월 15일이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한·미 FTA가 발효된 지 만 3년이 된다. 당초 한·미 FTA는 제조업 부문의 대미 수출 증가로 우리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금융, 서비스 및 농축산업 등과 같은 부문에 있어서는 국내의 관련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컸다. 한·미 FTA 발효 후 3년간의 성과는 어떠했을까?

상품 분야의 교역성과를 살펴보면, 발효 1년 차(2012년 4월~2013년 3월)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수출과 수입이 각각 2.5%, 9.5%씩 감소해 158억 달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발효 2년 차와 2014년의 경우에는 대미 수출입이 모두 증가해, 각각 199억 달러와 250억 달러라고 하는 큰 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즉, 한·미 FTA의 발효 전에 비해 대미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2년 시작된 유럽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시장은 중국시장과 함께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으로서 같은 기간 동안 대일본 및 대EU 교역에서 시현된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상품무역만 보면 성공적, 취약산업 영향은 크지 않아

품목별로는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철강관, 철강선, 반도체,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고무제품, 컴퓨터, 원동기 및 펌프 등이 대미 수출을 주도했으며, FTA 비혜택품목인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FTA 특혜품목들의 수출이 FTA 발효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및 부품, 계측제어분석기, 원동기 및 펌프, 합금철선철 및 고철, 정밀화학원료 등이 대미수입을 주도했으나 대부분 수입품목들의 수입이 FTA 발효 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됐거나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는 한·미 FTA가 제조업 제품의 교역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취약분야로 관심이 집중됐으며, 무역수지 적자 품목인 농축산물의 경우, FTA 발효 1년 전 수출과 수입이 각각 5.7억 달러 및 73억 달러로 68억 달러의 적자였던 것이 FTA 발효 3년 후인 2014년 수출과 수입이 각각 7.2억 달러 및 76억 달러로 소폭 증가에 그치며 69억 달러의 적자로 FTA 발효 후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우려했던 농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FTA 발효 후 북미지역의 가뭄 등으로 인한 곡물류 공급이 감소됐으며, 대부분 농축산물이 장기관세 철폐(돼지고기 2016년 1월1일, 쇠고기 등 15년 철폐) 대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향후 이러한 농축산물의 장기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발효 후 3년간의 성과를 상품 분야에 한정해서 평가해 볼 때, 한·미 FTA는 당초 기대보다 한국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농축산물 분야는 관세철폐 일정 등에 의해 당초 우려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등 대기업 제품 수출 증가 외에도 자동차부품, 섬유, 농식품(김·음료·김치·라면 등)과 같은 중소·중견기업 제품 수출도 함께 증대됐음을 알 수 있다. 단정적 평가를 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한·미 FTA가 대체로 우리 경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미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상황과 자동차 등에 있어서 향후의 추가적 관세철폐 스케줄 등을 고려하면 대미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농축산물에 대한 우리의 중장기적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응전략의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시장서 한국의 FTA 선점효과 점차 줄어들 것

한·미 FTA로 인한 이러한 성과의 일부는 아마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먼저 한·미 FTA를 체결해 미국시장을 무관세로 선점할 수 있었기 때문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EU FTA, 한·ASEAN FTA에 이어 한·중 FTA마저 발효돼 한국을 허브로 하는 글로벌 FTA네트워크가 완성되면 FTA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도처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메가 FTA들이 실현되면 미국이나 EU 등에서 FTA를 통해 누려온 한국의 특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즉, 현재 논의 중인 미국과 EU간의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미국과 일본이 참여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중국을 중심으로 한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돼 발효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EU와 미국시장에서 누려온 혜택은 경쟁국들에 의해 크게 잠식당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쟁의 여건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FTA와 같은 양자간 FTA를 통한 작은 이익에 안주하기보다는 국제통상환경 내지는 신지역주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메가 FTA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가 됐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메가 FTA가 체결되면 무한 경쟁의 환경이 조성되게 되며 그런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힘든 노력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특히 최근의 주변 여건이 우리에게 더욱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어 적극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기술추격으로 우리보다 값이 싼 고품질의 제품과 경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달러화, 엔화 및 유로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우리제품보다 값이 싸고 고품질인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제품들과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한·미 FTA 시대를 넘어 앞으로 전개될 메가 FTA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국들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차별적 경쟁력을 지닌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미 FTA와 주요국의 교역성과 비교

(단위: 억 달러)

		발효 1년 전 (2011.4~2012.3)	발효 1년 차 (2012.4~2013.3)	발효 2년 차 (2013.4~2014.3)	발효 3년 차 (2014년 전체)
대미국	수출액	593(14.3)	578(–2.5)	624(8.1)	703(13.3)
	수입액	464(12.9)	420(–9.5)	426(1.3)	453(9.1)
	무역수지	129	158	199	250
대중국 무역수지		482	560	627	552
대일본 무역수지		–276	–251	–242	–216
대EU 무역수지		42	–39	–67	–107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한국무역협회

미국 경제 회복과 한·미 FTA의 상승효과로 지난해 대미 수출은 13.3% 증가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국내 미판매 차량인 닛산로그가 미국 수출을 위해 선적되는 모습. 한국의 FTA 허브 전략을 상징하는 장면이다.

FOCUS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한·미 FTA 단계적 관세인하 대상인 경우, 발효 즉시 1년차 관세인하를 적용받으며, 매년 1월 1일 연차가 갱신된다. 올해는 4년차를 적용받는다.

글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미 FTA 3주년 어떻게 볼 것인가?

FTA 무대 자신감 쌓기에 충분… 국제 통상 질서에 통찰력 발휘할 때

한·미 FTA 발효 3주년 결과에 대해서는 곧 정부발표가 있겠지만, 발효 3년째인 2014년 결과를 보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의 효과는 이와 같은 수치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효과는 다른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의 FTA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현상을 직시해 보면 알 수 있다.

전 세계 FTA 시장은 현재 다양한 분야를 포함 하는 '내부적 진화', 형태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외부적 진화', 외부 환경변화와 결합하는 '최적화 진화' 등 3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먼저 내부적 진화를 살펴보면, 초기의 무역 원활화를 위한 원산지·통관 분야를 기반으로, 시장진입 조건, 마케팅, 바이어 발굴, 계약, 금융, 조달, 생산, 상역, 보험, 물류, 결제 등 무역의 전 프로세스로 확장되고 있다. 제조업 외에도 서비스·지식·문화·사회·융합·복합 분야 등으로 FTA가 확대되는가 하면, 최근의 FTA에서는 산업협력·농업협력·국영기업·중소기업 분야도 포함되는 등 범위가 무한확장 중이다.

FTA의 외부적 진화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초기의 양자 FTA는 물론 다자 FTA, 복합 FTA, 복수국가 FTA와 더불어 휴먼 FTA, 자유관광협정(Free Travel Agreement) 등 광의의 FTA들도 계속 출현하고 있다. 또한 FTA는 세계 시장의 주류 교역 패러다임으로서 외부 경제 환경변화를 수렴하면서 시장 최적화 진화를 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FTA+P2P(생산자 간 거래) 등 초연결 네트워크와의 결합, FTA+SNS(사회관계망서비스)+e-트레이드 융합을 통한 직구매 등의 비즈니스 모델 탄생, FTA+M2M(machine to machine), IOT(사물인터넷), IOE(만물인터넷) 등 사물인터넷과의 결합, FTA+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지속가능 요건과 결합, FTA+ODA(공적개발원조) 등 글로벌 공공재와 결합 등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조차 하기 힘들다.

한·미 FTA의 긍정적인 결과로 FTA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계량적 효과 이상의 소득이다. 사진은 2007년 6월 30일 미국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하는 모습.

3년의 경험으로 FTA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사라져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과 FTA 진화를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한·미 FTA의 진정한 효과와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첫째로 한·미 FTA의 긍정적 결과로 인한 국민들의 FTA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필자는 지방 축산농민들에게 FTA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200여 명의 축산농민 수강생 중 강의를 듣고 FTA를 반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3년 간 FTA를 반대했다는 한 축산단체 간부는 FTA가 "전국적으로 FTA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그동안 FTA를 반대하던 다양한 논리들이 효력을 상실한 점이다. 한·미 FTA를 반대하던 각종 구호나 명분, 이유 등이 FTA 성과로 인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 한·미 FTA보다 영향력이 큰 한·중 FTA가 큰 혼란 없이 진행 중인 것도 FTA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사라진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셋째, 한·미 FTA는 우리 국민들에게 FTA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한·미 FTA를 통해 FTA 협상에 대한 노하우·경험·지식·인재를 확보했고, 기업들의 활용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됐으며, 정부 정책의 다양성도 확보했다. 2014년에 많은 국가와 무리 없이 FTA를 체결한 것도 국민들의 자신감의 발로이다.

넷째, 미국과의 FTA를 기반으로 FTA 허브를 구축한 점이다. 미국·EU·ASEAN·중국·인도 등 주요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경제 강국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최근 필자는 헝가리·독일·중국 기업 등의 요청으로 FTA를 강의한 바 있으며, 특히 중국정부 초청으로 중국 기업인들과 공무원들에게 FTA를 강의하면서 FTA에 대한 관심과 한국의 FTA 허브를 활용하고자 하는 강한 니즈를 확인한 바 있다.

한·미 FTA 경험으로 쌓은 통찰력이 최대의 자산

한·미 FTA 3주년을 계기로 우리는 눈앞의 이해를 넘어서는 FTA의 흐름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통찰력이 아쉬운 사례들을 꼽으면, 첫째로 서비스 FTA에 대한 기회상실이다. 한·미 FTA 협정문 24개 챕터 중 절반 이상이 서비스이고, 한·중 FTA 22개 챕터도 크게 봐서 절반 이상이 서비스다. 중국도 한·중 FTA를 계기로 한국 공단 4개를 만들면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 진출을 원하고 있다. 또한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 등 서비스 관련 다자 협상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서비스 산업 FTA 활성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정책은 아쉽기만 하다.

둘째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가입으로 인한 손실이다. 만약 우리가 TPP에 가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TPP 국가들에게 수출하는 많은 제품들이 TPP 회원국인 일본제품으로 전환되고, 중국·대만 등이 수출하는 많은 물량이 한국제품으로 전환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셋째로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에 대한 무관심이다. TTIP는 EU와 미국 간의 FTA이지만 현재 캐나다, 일본 등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U는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했고, 일본과는 협상 중이다. 미국 또한 캐나다와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를 체결했고, 일본과는 TPP로 연결되므로 캐나다와 일본도 TTIP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TTIP라는 거대한 수출시장에 우리는 일본, 미국, EU, 캐나다보다도 불리한 여건에서 수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TTIP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기업들도 조속히 이에 대비해야 한다.

향후 국가적 사활이 걸린 이런 중차대한 FTA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 앞에서 강조한 FTA를 넘어서는 통찰력과 예지력이 필요하다. 한·미 FTA 발효 3주년에 즈음해 현재 우리 사회의 FTA에 대한 인식과 대비, 정책의 '퀀텀 점프(단계적 도약)'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글 이진원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광진윈텍(최우수상 공동수상)**

전기담요 생각하면 오산, 첨단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국내 대기업에 원재료·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의 FTA 활용 방식은 대개 2가지로 구분된다. 수출자에게 국내산을 공급하고 원산지확인서(국내용)를 제공하는 것과, 자사의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이다. 부산 장안지방산업단지에 자리한 자동차부품업체 광진윈텍은 이 두 가지 전략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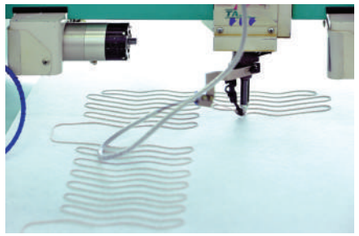
부품업체들을 방문할 때는 사진이 항상 고민이다. 집이 아무리 예뻐도 외장을 마무리하기 전엔 시멘트 덩어리에 불과하고, 자동차가 아무리 예뻐도 외장강판을 떼어내면 기름덩어리 기계일 뿐이다. 광진윈텍의 주력품은 자동차 시트를 따뜻하게 데우는 열선과 조절장치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제품이라 아름답지는 않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hidden) 완성품의 가치를 최고로(champion) 높이기 위해 기여하는 것이 '히든 챔피언'의 숙명이다. 이 회사 제품의 국내 점유율은 70% 이상으로 현대기아차 장착 비율이 95% 이상이다. 르노삼성에 일부 납품되고 있으며, 포드, 피아트 등에도 일부 공급하고 있다.

열선 두께는 0.9mm, 화재위험·전자파 없어

자동차광이라 하더라도 엔진, 변속기, 서스펜션에만 관심을 갖지 시트히터(seat heater)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시트히터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니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퀴즈. 자동차에 들어가는 열선의 두께는 얼마일까? 전기담요에 들어가 있는 열선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시트히터 열선의 두께는 0.9mm다. 구리와 내열피복까지 합친 두께다. 운전대에 들어가는 열선은 더 가늘다. 열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느다란 전선이지만, 고객사가 원하는 온도가 충분히 나와야 하고, 또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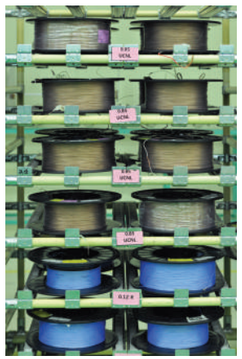
2

3

1,2. 열선을 수놓는 기계는 실제 자수기계에 열선 공급장치를 달아 개조한 것이다. 3. 시트히터, 통풍시트, 발열핸들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통합 콘트롤러(ECU)를 제조하는 모습.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항값이 균일해야 한다. 올해 출시되는 자동차들에는 저전력으로 작동하는 탄소섬유 열선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전기장판의 과열로 화상을 입거나 또는 불이 났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시트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뉴스는 본 기억이 없다. 자동차 제조업체라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장면이다. 전선이 얇다고 해서 내열피복의 기능이 떨어지면 안 된다. 또한 구리선 자체도 고열에 타버려서도 안 된다. 추가적으로, 시트히터에서 전자파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전기담요의 전자파 관련 뉴스가 또 다시 생각났다.



자동차용 시트히터에 들어가는 열선은 0.9mm로 가늘지만, 저항값·내열성·전자파 등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회사의 시트히터에서는 전자파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심지어 콘트롤러(ECU)에서조차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는 수준이다. 자동차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는 말이 실감났다.

공장 내부 작업자들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열선이 장착된 하얀 펠트(felt: 부직포)가 잔뜩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 첨단제품임에도 봉제공장 같은 분위기다. 그러나 열선이 가늘다 보니 조금만 부주의해도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작업자들은 모두 숙련된 기술자들이다. 작업의 시작은 기계가 프로그램된 패턴에 따라 펠트에 열선을 수놓는 것이다. 자수기계에 열선 공급장치를 부착해 개조한 기계다. 패턴은 차종마다 다른데, 210명 직원 중 연구인력은 20명으로 시트 형상에 따른 최적의 패턴을 매일 연구하고 있다.

공장 내 다른 섹션에서는 콘트롤러(ECU: Electronic Control Unit) 제작이 한창이다.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다.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에 각종 반도체가 부착되는 곳으로 대부분 기계화되어 있고, 사람은 필요한 때 부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열선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승객이 최대한 쾌적함을 느낄 수 있으려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콘트롤로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FTA로 한국·중국·베트남 공급망 최적화

광진윈텍은 1982년 펠트직물을 만드는 업체(광진직물)로 출발했지만, 사양산업을 버리고 첨단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혁신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다. 1989년 자동차용 시트커버를 만들기 시작했고, 1999년 합병(광진산업 설립) 후인 2000년부터 시트히터를 만들었다. 2004년 중국 생산법인 설립, 2007년 베트남 생산법인을 설립하며 해외로 진출했다. 2005년부터는 발열핸들, 통풍시트로 생산영역을 넓혔고, 2010년부터 콘트롤러까지 만들기 시작했다.

현재 글로벌 생산비중은 한국 21.8%, 중국 15.8%, 베트남 62.4%다. 중국의 경우 완성차 업체의 현지 생산공장에 공급하고 일부 국내 수입을 하고 있으며, 베트남 생산량은 전량 국내로 수입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낮은 생산비용으로 생산한 제품은 국내 내수용 차량에 장착돼 완성차의 가격경쟁력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 생산품들은 국내 완성차들이 해외로 수출될 때 역내 부가가치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향후 FTA 환경도 광진윈텍에는 우호적이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현재 대중국 수출관세 14%의 인하가 예상되고, 체결 막바지에 이른 베트남·EU FTA가 발효되면 '베트남→EU 수출' 시 관세 2.7%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은 TPP에도 참여하고 있어 향후 미국 수출에서도 이점을 기대해볼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일반화된 지금에는 한국의 FTA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끼리의 FTA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광진윈텍의 사례를 통해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글 김보람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CJ제일제당의 종자 개발 현장 탐방

식품한류는 씨앗에서 시작된다

재배, 수확, 판매 등 여러 과정에서 농업경쟁력을 키우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 시작은 우수한 종자의 개발이다. 종자 하나만 바꿔도 생산량이 많아지고, 수확이 용이해지고, 맛이 달라져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전문업체는 아니지만,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협력 관계인 농가와 상생하기 위한 차원에서 종자 개발에 나서고 있다.

콩나물값을 검색해봤다. 국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중국산 콩으로 국내에서 재배한 콩나물은 4kg에 8,000원이었다. 소량은 없고 대량으로만 판매한다. 주로 식당용이다. 국산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은 400g씩 작은포장으로 약 2,000원 안팎에 팔린다. 국산콩 콩나물은 비싸다보니 소량으로만 포장돼 귀한 대접을 받는다. 단가로만 따지면 국산콩 콩나물이 중국산 콩으로 만든 것에 비해 2.5배가량 비싸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주부들 덕에 국산콩으로 만든 콩나물은 다소 비싼 가격에도 꾸준히 팔리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 아무래도 싼 것을 찾게 되고, 재배량이 줄어든 국산콩은 더욱 비싸진다. 현재 국내 식용콩 수요량은 약 44만 톤이다. 이 중 국내산과 수입산의 비율은 약 3 대 70이다. 그 중 콩나물용 콩 비율만 보면 국내산 1만 톤, 수입산 4만 톤이다. 수입산이 월등하다. 국산콩은 인건비 상승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다. 원가가 오르면 제품가격을 올려도 되겠지만, 콩나물 한 봉지에 5,000~6,000원씩 한다면 소비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콩나물은 어쨌든 서민의 음식이다. 이런 고민이 CJ제일제당이 종자 개발에 나서게 된 계기가 됐다.

국내산 콩나물용 콩 20% 불과…생산성 확보가 관건

CJ제일제당은 2011년부터 만 3년 동안 자사 식품연구소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종자인 'CJ행복한1호'를 보급하고 있다. 2012년, 2013년 시험재배에서는 제주도 3개 농가가 참여했다. 국내 콩나물 콩 재배의 80% 이상이 제주도에서 이뤄지는데, 이는 내륙으로 갈수록 콩 크기가 커지고 눈색이 진해져 콩나물용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험재배 결과 꼬투리 수, 콩알 수 모두 기존 품종에 비교해 많았고, 증수율은 130~150% 이상이었다.

2014년에는 한경, 구좌, 제주, 하귀 등의 5개 농협 9개 농가가 참여해 총 33만㎡ 규모로 재배를 시도했다. 3개 농협에서는 기계수확도 시도했다. 신품종은 착협고(꼬투리가 열리는 최저 지상고)가 높아 기계수확이 가능해졌다. 기존 콩은 착협고가 낮아 기계로 수확하면 낮은 위치의 꼬투리 상실 비율이 커 기계화가 어려웠다. 사람이 직접 손 수확을 할 경우 기계 수확에 비해 2배의 비용이 든다. 농민들은 기계화보다는 일단 수확량이 많아졌다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CJ행복한콩1호'는 아직 제품화로 이어지진 않았다. 현재 재배되는 콩은 선별해 다음해의 종자로 활용되고 있다. 이 회사 식품연구소 정지원 부장에 따르면 "신품종은 개발에 3~5년, 적용에 3~5년, 확대재배에 3~5년 등 총 10~15년 걸리고, 농민과의 소통에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밝혔다.

CJ는 콩 외에도 벼, 고추, 녹두, 김 등의 종자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10년 개발을 시작해 4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된 쌀 신품종인 거대배아미 '서농17호'는 지난해 10월 '햇반 큰눈영양쌀밥'으로 출시돼 시판 중이다. 거대배아미 외에도 햇반 전용 품종으로 거대흑미, 유색미, 하이아미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고추의 경우는 2010년부터 종묘회사와 공동으로 품종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나와 있는 품종의 해외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에서 주로 들여오는 수입산 고추를 타 지역으로 다변화하고 또 농약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현재 미얀마와 베트남에 적합한 품종이 무엇인지 현지 재배로 테스트하는 중이다.

우수한 종자로 농민·기업·소비자 상생 추구

배추의 경우, 향후 해외수출 또는 가정용 김치 담그는 수요 감소를 감안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 중이다. CJ제일제당은 김치사업의 주요 방향을 '맛김치'로 선정하고 이에 맞는 전용 품종으로 장축배추를 선정하고 2013년부터 품종을 개발 중이다. 포기김치와 달리 맛김치는 축이 있어야 하므로 장축배추가 필요한데, 현재는 대부분 가정용 김치에 적합한 잎이 넓은 품종이 재배된다.

녹두의 경우, 국내 국가기관이 더 이상 녹두 품종연구를 하지 않고, 국내 녹두가격이 높은 데다, 발아율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신품종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3년 논의를 시작해 2014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

김의 경우, 일본품종이 지배적인 김 시장에서 토종 종자를 개발한다는 의미 외에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에 대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2012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현재 국내 최초 국산 김 종자인 '해풍1호'로 만든 '햇바삭 토종김'이 출시됐다.

CJ제일제당은 자사의 종자개발이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활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콩과 같은 곡물의 경우 채소와 달리 '잡종강세(2015년 2월호 26~27페이지 농우바이오 기사 참고)'가 없어 재배한 콩을 다시 심어도 되므로 이익을 내놓을 수 있는 품종은 아니다(고추, 배추 등은 아님). 다만 CJ제일제당은 다른 종자와 자연적으로 섞일 가능성을 감안해 종자를 직접 공급하고 있다. 정지원 부장은 "수확량을 늘리는 데는 여러 가지 재배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종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종자 개발을 통해 소비자는 저렴하게 고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농민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1

2

1. CJ제일제당은 국산 콩나물용 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량이 많고 기계화가 가능한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2. 지난해 제주도에서 시험재배 중인 'CJ행복한1호' 콩의 모습.

글 박현용 인포마스터 컨설턴트
사진 한국경제신문

FTA를 대비하는 지자체들의 한·중 대결

중국, 중앙정부 주도 일사불란… 한국, 중앙·지방 유기적 전략 필요

중국은 한·중 FTA 타결 전부터 한·중 FTA를 투자유치와 국내 산업구조 개혁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 성·시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 중앙정부 역할이 비교적 큰 편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한국 지자체의 한·중 FTA 대응 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한·중 FTA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업간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진은 2014년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모습.

중국 중앙정부는 한·중 FTA가 '중국 개방 제2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적극적으로 지방 성·시정부를 중심으로 한국과 연계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종합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제2차 자유무역시범지대로 텐진시(天津市), 상하이시(上海市), 광둥(廣東省), 푸젠(福建省)을 지정했다. 또한, 칭다오(青島)서해안신구, 다롄진푸(大连金普)신구와 같은 중국국가급신구를 신규로 설치해 개혁개발의 제2의 모멘텀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 한국 투자 유치에 적극적

또한 중국 국무원, 공산당 중앙정치국, 중국전인대 상무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가 공통적으로 한·중 FTA의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선진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관광·의료·민간 교류 등 다방면에서 기업 투자유치 및 교역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주로 한국 중앙정부, 지자체, 국회, 정당을 중앙과 지방정부 주관으로 초청해 사업을 설명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 성·시정부 중에서 산동성(칭다오시), 랴오닝성(다롄시), 허베이성(청더시)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한중 합작도시 건설, 수입통관 규제완화, 한국 특화 자유무역구를 건설하는 등 경쟁적으로 한국 자본유치와 통관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한·중 FTA 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①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 분야에 적합한 산업특구지역 설치 ②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적 주도 하에 지방 정부가 실행 방안을 제시 ③한·중 FTA 공동 연구 기간과 협상 과정에서부터 민·관 협력 전략 모색 ④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 수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 지자체 간 개별적·경쟁적 대응 탈피해야

한국은 중국이 한국에게 갖는 '메이드 인 코리아' 프리미엄, 한류열풍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국 수출 확대와 중국 내수시장 선점 및 투자유치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 동시에 지적재산권 등의 이유로 중국 진출을 주저하는 미국, EU 등의 선진국 기업들과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중국기업들에게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점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있는 개별적이고 경쟁적인 대응체계를 과감히 탈피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이고 통합된 한·중 FTA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과 한국의 한·중 FTA 활용을 위한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첫째, 우리나라가 통관을 중심으로 한 상품교역에 집중하는데 비해서 중국은 투자와 서비스교역까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둘째, 중국은 자국으로의 투자 유치와 서비스 산업 구조개혁을 위한 인바운드(in-bound)에 집중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 확대 등 아웃바운드(out-bound)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FTA 활용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중심의 활용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업간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성과로 연결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광역 지자체, 8개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지역테크노파크, 민간기업 등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한·중 FTA를 통한 경제혁신 붐 조성, 지방정부는 지역특화산업육성, 경제자유구역청은 맞춤형 투자유치, 지역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체의 활용촉진이라는 미션에 맞는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중 FTA를 개별 지자체의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인식해야 하며, 특히 중국과 인접한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의 경우 통합물류체계 구축과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보다 밀접한 경제관계를 형성하는 장기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관심 분야인 부품소재, 의료·바이오, 문화콘텐츠, 패션, 화장품 등의 산업과 지자체의 특화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매칭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 정부는 산동성 칭다오시를 서해안 경제신구로 지정하면서 한·중 FTA의 실질적인 효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칭다오시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며 우리나라 기업체가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칭다오시를 한국의 상품, 문화, 사람, 자본이 집중 투자되는 상징적인 플랫폼으로 설정하고 조기에 한·중 FTA 성공사례를 도출하는 전략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칭다오시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2선 도시와 내륙으로 확대하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중 FTA 관련 중국 중앙·지방 정부 주요 정책 문건

중앙·지방정부 및 기관		일자	정책	발행 기관 (및 주요 기관)
중국 상무부		2015.1.9	"자동차, 문화산업, 양로의료, 영화와 TV프로그램 제작, 선진제조업과 제약업 같은 분야에 양국이 협력해 발전할 것"	중국상무부투자 촉진사무국
텐진시 (天津市)		2014.11.26	'투자무역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상호 협조 협의'	텐진시상무위원회 (한국 측 KOTRA)
		2014.12.18	"한중미용산업합작"	텐진시 정부
랴오닝성 (遼寧省)	다롄시 (大連시)	2014.6.23	'국무원 다롄 금보신구 설립 동의에 대한 회답'	국무원, 랴오닝성정부
		2015.1.13	'둥지짓기(筑巢)': FTA 효력 이후에 더욱 활발해질 양국의 무역을 대비해 전통서비스무역발전, 관광업, 운송업, 도매업 등 여러 무역 분야를 넓혀 자유무역구를 만들 계획	다롄시 정부
허베이성 (河北省)	청더시 (承德市)	2014.12.10	'청더시와 한중지도자협회 전략적 합작 협의'	청더시 정부 (한중지도자협회)
산동성 (山東省)	칭다오시 (青島市)	2014.6.3	'국무원 칭다오 서해안신구 설립 동의에 대한 회답'	국무원, 산동성정부
		2014.8.15	'중·한지역 경제합작 시범도시 실시에 대한 의견'	칭다오시 정부
		2014.12.31	'칭다오시 상무국의 수입산업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전달'	칭다오시 정부

자료: 인포마스터(각 성·시 정부 웹사이트 및 언론 보도 검색)

한·중 FTA관련 한국 내 서해안권 지자체의 대응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서울	중국 관광객이 서울에 집중되는 만큼 서울시 내 중국인들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밖에 대외적인 정책 및 조성계획은 나타나지 않음
경기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여객 유입을 확대하고 신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중국특구를 조성해 산업은 물론 교육·관광 수요의 유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전북	농축수산물 및 식품을 중심으로 한 대(對)중국 유통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중국과의 원활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및 지원제도 개선에 집중함
전남	농축산물의 FTA 피해 최소화와 유통을 위한 계획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인천	중국과 가장 인접해 근거리 물류와 교류에 대비한 인프라 조성 및 상시적이고 긴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충남	서울, 인천, 제주 등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신항로 취항 및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해 서해안권 경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함
광주	2014년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親중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문화중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제주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 했으나 민선 6기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로 대(對)중국 관련 추진계획이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보여짐

자료: 인포마스터

글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국제경제학 박사)

자유무역의 역사: ⑭**복수국 간 서비스협정(TISA)**

한국 포함 23개국 참여…향후 WTO 규범화 목표

흔히들 '무역'이라 하면, 자동차나 스마트폰과 같은 상품의 무역을 떠올린다. 세계 무역에서 상품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다. 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과 달리, 때에 따라 서비스 판매자나 소비자까지 국경을 넘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서비스무역 방식은 크게 4가지 형태(mode)로 구분된다. 모드1(mode 1: cross-border supply, 국경 간 공급)은 국제 화물운송과 같이 서비스 수출자와 수입자가 각각 자국에 있으면서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방식이다. 모드2(mode 2: consumption abroad, 해외소비)는 유학이나 관광처럼 서비스 수입자가 서비스 수출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모드3(mode 3: commercial presence, 상업적 주재)은 해외 직접투자와 같이 서비스 수출자가 서비스 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자본을 가지고 이동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모드4(mode 4: movement of natural persons, 자연인의 이동)는 K팝 스타들의 해외 공연처럼 서비스 수출자가 서비스 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서비스 분야 협상 시 4가지 방식에 대해 개방 정도를 논의하게 된다.

현재 전체 서비스무역에서 모드1(국경간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 모드2(해외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모드3(상업적 주재)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그리고 모드4(자연인의 이동)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이다.[1]

서비스무역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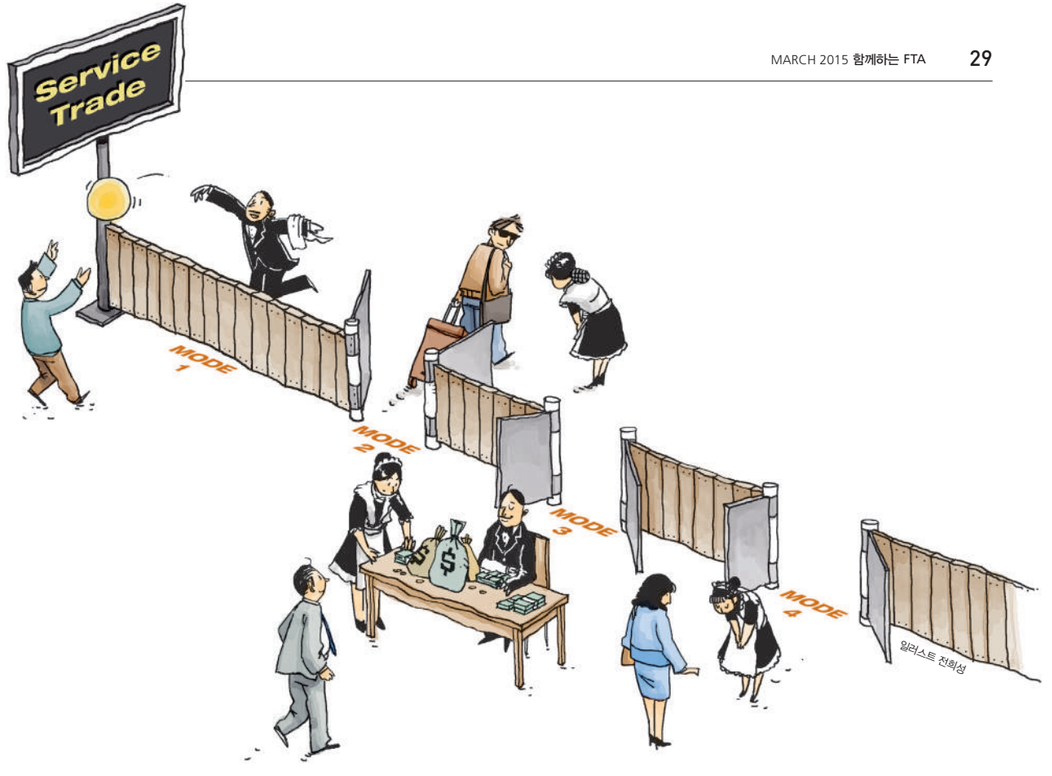
모드 1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모드 2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모드 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모드 4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2020년 서비스무역량은 상품무역량에 필적

그동안 상품분야에서는 관세철폐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가 꾸준히 이뤄져 왔다. 그러나 서비스분야에서는 무역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돼 왔다. 미루도 에 알(Miroudot et al, 2010)에 따르면 과거 10년간 상품의 무역비용(trade cost)은 대략 15% 감소했으나 서비스부문의 무역장벽 감축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기술 발달 및 국제화의 진전 등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활기를 띠면서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서비스무역 규모가 제조업 무역에 필적하고, 2050년에는 모드3(상업적 주재)만으로도 제조업 무역 규모와 대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Hufbauer and Stepheson, 2007).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은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유통 등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서비스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 2001년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머물게 되자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2012년 초부터 복수국간 서비스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서비스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제 추세를 반영하자는 취지이다.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일곱 차례의 준비회의를 통해 협정의 체계와 협상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회의에서 향후 협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협정 프레임워크 문서를 채택했다. 이 문서는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의 목표, 구조, 주요내용(협정문, 양허안, 규범), 협상일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국은 이 문서를 활용해 협상 참가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한 뒤, 2013년 6월부터 공식협상을 출범시켰다. 현재 복수국간 서비스 협상 참가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터키, 이스라엘, 파라과이, 리히텐슈타인 등 23개국이다. 협정 참가국들의 서비스무역액은 2010년 기준 약 6.1조 달러로 전세계 서비스무역액에서 70% 이상을 차지한다(성한경, 2013).



TiSA 대비 한국의 서비스경쟁력 키워야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협정 체계의 큰 틀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복수국간서비스 협정은 WTO 서비스협정(GATS) 제5조에 근거한 지역무역협정(RTA)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양허 방식은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는 포지티브 방식(허용분야 지정)으로, 내국민 대우는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자유화, 금지분야 지정)으로 양허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화 수준에 있어서는 일부 민감한 분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현재 체결된 최선의 FTA 내에서의 자유화 수준으로 개방하며, 추가적인 시장개방도 검토하기로 했다.

협정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GATS의 골격과 주요 조항을 유지하되, 신규 또는 개선된 규범도 도입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에 모든 WTO 회원국을 참여시키는 다자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이 타결되면, 가입조항을 활용해 당사국을 확대하고 당사국 수가 임계치(critical mass)에 도달하게 되면 다자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협상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가급적 조기에 타결을 추진키로 했다. 회원국들 간 협상은 현재까지 다섯 차례 진행됐다. 그리고 2015년은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생산성이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TiSA에 참가하는 경우 장기적으로(15년 이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63~0.64%(약 83~84억 달러) 증가하고 후생수준은 12억~13억 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수국 간 서비스무역 자유화가 향후에 다자화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우리가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취약한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TiSA를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1) 성한경,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안",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공청회』, 2013.2.24.

글 이혜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세계의 FTA: ⑭**콜롬비아의 FTA**

미국, 유럽 등 중남미 바깥으로 확장 중… 한국 교두보 삼아 아시아로도 FTA 확대

질 좋은 커피를 생산하기로 유명한 콜롬비아는 최근까지 무장반군 세력이 상당해 치안이 불안정했다. 2000년대 초반에서야 우리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내적 안정을 달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꾀할 수 있었다. 그 뒤를 이은 산토스 대통령은 더 나아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며 여러 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콜롬비아의 경제영토를 전 세계로 넓혀 나가고 있다.

지난해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콜롬비아는 한국과의 FTA에 대한 상하원 의회 비준을 마치고, 현재 헌법재판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올해 중 발효가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열린 대통령 취임식 모습.

콜롬비아는 안데스공동체(CAN: Comunidad Andina de Naciones)를 시작으로 경제통합의 첫 발을 내딛었다. 콜롬비아를 비롯해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등 안데스 산맥 주변의 5개국이 1969년 경제협력 및 통합을 목표로 새로운 공동체를 창설한 것이다. 이후 CAN은 칠레의 탈퇴 및 재가입(준회원국), 베네수엘라의 가입 및 탈퇴 등의 변화를 겪으며 현재 4개국 체제에 이르게 됐는데, 관세동맹을 구축하고 역외공동관세를 부과하는 등 경제통합을 위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는 개별국 차원에서도 FTA를 추진해왔다. 멕시코, 베네수엘라와 함께 G3(Group of Three)[1] FTA(1995년), MERCOSUR[2]와의 FTA(2005년)를 발효했고, 2000년대 후반에는 이른바 '노던 트라이앵글(Nothern Triangle)'이라고 불리는 중미 북부지역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3국과의 FTA를 발효(2009~2010년 순차 발효)하면서 주변국으로의 경제영토 확장 및 경제통합에 집중했다.

2010년 이후 중남미 바깥으로 FTA 영역 넓혀

2010년 이후부터 콜롬비아의 FTA 정책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중남미 지역을 벗어나 다른 대륙과의 FTA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콜롬비아는 유럽의 EFTA, EU, 그리고 북미의 캐나다, 미국 등 총 4건의 FTA를 2011~2013년 사이에 발효했다. 앞서 살펴봤듯이 2010년 이전 콜롬비아의 FTA 체결 대상이 중남미 지역에 한정돼 있었던 점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사실 중남미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중국, 일부 EU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미국은 콜롬비아의 최대교역국으로, 콜롬비아의 대미교역은 대세계교역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따라서 콜롬비아는 미국, EU와의 FTA를 통해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을 단기간에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콜롬비아의 FTA 교역비중은 17.7%에 불과했지만, 콜롬비아·미국 FTA가 발효된 2012년에는 46.2%로 도약했다. 나아가 2013년 발효된 EU와의 FTA는 FTA 교역비중을 60.8%까지 끌어올렸다.

이렇듯 단시간 내에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해 낼 수 있었던 것은 콜롬비아가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EU가 처음 콜롬비아와 협상을 시작한 것은 양자 FTA가 아닌 CAN 4개국과의 FTA였다. 하지만 EU·CAN 간 협상이 결렬된 이후, 콜롬비아는 다른 국가들과 별개로 EU와의 FTA를 추진했고 이에 적극 나섬으로써 협상 개시 16개월 만인 2010년 5월 협상을 타결해냈다. 덕분에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다른 CAN 국가들에 비해 이른 시기에 EU의 시장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정치상황 변화로 한·콜롬비아 FTA 발효 기대감

콜롬비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많은 국가들과 FTA를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재선에 성공한 산토스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등 이미 타결을 완료한 FTA의 비준 절차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와의 FTA는 타결 완료 후 비준 절차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동안 콜롬비아가 짧은 시간에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연속적으로 체결해 오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구하는 여론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특히 재선을 노렸던 산토스 대통령은 이러한 여론을 고려해 비준 추진이 늦어졌다.

한·콜롬비아 FTA 역시 이러한 사정 때문에 발효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산토스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한 이후, 2014년 12월에 이르러 콜롬비아도 의회절차를 완료하고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에서는 FTA 비준을 위해 총 4단계에 걸친 의회절차(상원위원회–상원–하원위원회–하원)를 통과하고, 그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거쳐야 FTA 발효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콜롬비아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의 창설멤버로서 지역블록 형성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태평양동맹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등 4개 회원국 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역내 상품의 92%에 대한 관세를 즉시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경제통합기구다. 특히 FTA에 관한 내용을 담은 추가의정서를 2014년 2월 서명하고, 현재는 각국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다. 여기에 코스타리카 등 더 많은 국가들이 태평양동맹에 합류하며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콜롬비아의 FTA 정책방향과 중남미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콜롬비아의 FTA 추진 동향

발효	• CAN(안데스공동체) CU(1988년 5월) • G3(Group of Three: 멕시코·콜롬비아·베네수엘라) (1995년 1월. 현재 베네수엘라 탈퇴) • MERCOSUR FTA(2005년 2월) • 칠레 FTA(2009년 5월) • Nothern Triangle(엘살바도르·온두라스·과테말라) FTA (2009~2010년 순차 발효) • EFTA FTA(2011년 7월) • 캐나다 FTA(2011년 8월) • 미국 TPA(2012년 5월) • EU AA(2013년 8월)
서명 및 타결	• 한국 FTA(2013년 2월) • 파나마 FTA(2013년 9월) • 코스타리카 FTA (2013년 5월) • 이스라엘 FTA(2013년 9월) • 태평양동맹(2014년 2월)
협상중	• 일본 EPA • 터키 FTA • 우루과이 FTA

※CU(Customs Union: 관세 동맹), TPA(Trade Promotion Agreement: 무역촉진협정), AA(Association Agreement: 연합협정),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동반자협정)은 모두 넓은 의미의 FTA에 포함됨.

1) G3(Group of Three) FTA: 1995년 1월 발효 당시에는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3국 간 FTA 였으나 베네수엘라가 2006년 11월 탈퇴를 선언하며 현재는 사실상 멕시코–콜롬비아 양국 간 FTA 역할을 하고 있음.
2) MERCOSUR(남미공동시장: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6개국.

글 이민선 관세사(Ciel HS)

HS품목분류표의 기본구조

2단위 구분은 법적 효력 없고 4~6단위부터 구속력 생겨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은 천연산물로부터 최첨단 제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형태도 원료에서부터 반제품, 반가공품, 중간제품, 부분품, 완제품, 중고품, 폐품 등까지 매우 다양한데, 이러한 상품들의 일괄적 분류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제도인 HS품목분류표가 사용되고 있다. 지난 호에 HS품목분류표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 이번호에서는 HS품목분류표의 구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HS품목분류표의 기본구조는 품목분류표 전체에 대한 일반적 분류기준으로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GRIs: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S)'을 포함해 상위 차원 수준에서 '부(Section)'로 수평 배열하고, 각 부는 중위차원에서 '류(Chapter, 2단위)'로 중분류, 각 류는 하위 차원에서 '호(Heading)'로 소분류 한다. 호는 다시 하위 차원에서 '소호(Sub-heading)'로 세분류하는 순으로 하향 수직배열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소호 아래 7단위 이상은 각국의 실정에 따라 세분류해 사용할 수 있다.

HS품목분류표의 기본구조

구분	구성	법적구속력	일반적 분류기준
통칙 (GRIs)	통칙1~6	○	• 통칙1을 최우선 적용 • 통칙1에 의해 분류되지 않는 경우 통칙2부터 통칙4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 통칙5는 포장 및 용기에 적용(별개의 원칙) • 통칙6은 소호에 대한 분류원칙
부 (Section)	1~21부	×	• 1~15부(12부 제외): 성분별, 가공도별 분류구조 • 16~21부, 12부: 용도별 주기능별 분류
류 (Chapter)	1~97류 (77류는 유보)	×	• 동일 물품은 동일 류에 분류 • 류 내에서는 생산, 가공단계별 분류 (원재료→반제품→완제품)
절 (Sub-chapter)	28,29,39,63,69,71,72류에 설정	×	• 한정된 류에만 있고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유사한 형상 또는 유사한 가공단계 등의 물품을 그룹화)
호 (Heading)	1,224개	○	• 류를 품목에 따라 4단위로 세분류
소호 (Sub-heading)	5,205개	○	• 호를 5~6단위로 세분류
주 Legal Note	444개 (부, 류, 소호에 설정)	○	• HS 협약 주와 국내 주로 구성 • 각 부, 류, 호의 분류범위 및 용어정의와 경합물품 표시

HS품목분류표 예시

통칙

HS품목분류표는 도입부에 통칙을 두어 품목분류 시 지켜야 할 원칙 및 적용 순서를 미리 밝혀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관세율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통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본원칙으로서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첫 번째 항목인 통칙1은 최우선 적용되는 원칙이다. 통칙1에 의해 분류되지 않는 경우 통칙2부터 통칙4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통칙5는 별개의 원칙으로서 포장 및 용기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이며, 통칙6은 소호에 대한 분류원칙이다.

부

대분류인 '부'는 제1부~제21부로 구성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산업의 유형(농·수산물, 석유화학, 경공업, 중공업, 잡품·미술품 등)을 따르면서 생산품(Product)과 제품(Article)별 대표로 구분돼 있다.

류, 절

중분류인 '류'는 제1류~제97류로 구성돼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와 같이 산업별 분류 형태를 유지하면서 재질, 가공형태, 용도 등에 따라 위치를 배열하고 있다. 또한, 특정 류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유사물품 군으로 구분한 절(sub-chapter)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 류, 절의 표제는 HS품목분류표가 포괄하는 상품의 범주 또는 형태를 간소하게 계통적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부, 류 및 절에 분류되는 물품의 다양성과 많은 수로 인해 이들 모두를 표제에 구분해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 류, 절의 표제는 통칙과 달리 분류에 대한 법률상 기준이 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호, 소호

이와 달리, 류를 품목에 따라 4단위로 세분류한 호와 호를 다시 5·6단위로 세분류한 소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러한 호와 소호는 동종 또는 유사물품끼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열한 품목의 리스트에 4단위 및 5·6단위 코드를 부여받고 있으며 품명과 결합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주

한편, 각 부, 류, 호, 소호에 설정된 분류지침으로서 물품의 정확한 범위, 용어의 정의 및 경합물품 등을 기재한 주(Legal Note)가 있는데 각각의 주는 해당 부, 류, 소호에 대해 적용되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러한 주는 HS협약에서 정하는 주와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정한 국내 주 6개가 있다.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HS 해석에 관한 통칙
Classification of goods in the nomenclature shall be governed by the following principles
명명법에서의 상품 분류는 아래의 원칙을 적용 받는다

Rules 1
통칙 1
The tiles of section, chapters and sub-chapters are provided for ease of-중략-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visions
아래 제공된 바에 따라 부, 류 그리고 절은 ~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다.

→ 통칙

Section 1
1부
LIVE ANIMALS; ANIMAL PRODUCTS
산동물; 동물생산품

→ 부 / 표제

Note
주
1. Any reference in the section to a particular genus or species of an animal, except where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includes to the young of that genus or species
1. 특정 종 또는 속의 동물에 대한 부의 참조, 단 별도의 문맥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종 또는 속의 새끼는 포함

→ 부의 주

Chapter 1
1류
Live Animal
산동물

→ 류 / 표제

Note
주
1. This Chapter covers all live animal except;
(a)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of heading 03.01, 03.06 or 03.07
1. 이 류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산동물을 규정한다
(a) 03.01호, 03.06호 또는 03.07호에 해당되는 생선 그리고 갑각류, 연체동물 그리고 기타 바다 무척추생물

→ 류의 주

Heading 호	Code No. 코드번호	Description 정의
01.01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es 살아있는 말, 나귀, 노새 그리고 버새 → 호(용어)
	10	-Pure-bred breedint animals 순수하게 사육된 동물 → 소호(용어)
	20	-other 기타 → 소호(용어)
02.02		Live bovine animals 살아있는 소 → 호(용어)
	10	-Pure-bred breeding animals 순수하게 사육된 동물 → 소호(용어)
	20	-other 기타 → 소호(용어)

글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FTA별 개성공단 인정 방식 이해하기

3가지 방식으로 구분… 한·중 FTA는 추가 지역 가능

한국이 체결한 FTA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역외지역인 개성공단 제품의 역내산 인정 여부다. 한·중 FTA 이후 지금까지의 FTA를 보면 크게 '개성공단 한정'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성공단 플러스'의 3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

2000년 논의가 시작된 개성공단사업은 2004년 6월 시범단지에 15개 기업이 입주를 시작한 이래 2014년 10월(이하 동일) 기준 125곳으로 늘었다. 누적 생산액은 26억 달러, 연간 수출액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약 3,700만 달러를 기록할 정도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근로자는 5만4,000여 명이다.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보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남한산이라는 원산지 특례가 인정되지 않고, WTO 비회원국이자 비정상교역국인 북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식, 고율관세를 매기는 현 관행이 큰 수출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교역을 '민족 간 내부거래'로 고려해 해당 제품들을 무관세로 반입하고 있는 남한 역시도 이에 대해 기타 교역국 및 WTO 회원국들로 하여금 언제든 WTO 최혜국대우원칙(MFN) 위반이라는 분쟁 소지를 갖고 있다.

2월 25일 한·중 FTA 가서명 후 정부는 "개성공단 인정품목이 270개에서 310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개성 이외의 역외가공지역 설립을 가능하도록 해서 남북 교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은 개성공단 전경.

개성공단 생산 물품에 대해 원산지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남한이 체결한 FTA에서 '역외가공'으로 인정받는 특례원산지규정방식이다. 개성공단 가동 직전인 2004년 4월에 발효된 한·칠레 FTA를 제외하면 한국이 맺은 나머지 14개의 FTA(타결선언 기준)에는 개성공단 관련 역외가공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 방식은 △개성공단으로 역외가공지역을 한정하는 방식 △당장은 역외가공을 인정하지 않고 추후 협상에서 논의하는 위원회 방식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 및 보다 포괄적인 제품군을 남한산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01 개성공단 한정

인도, 페루, 콜롬비아와 맺은 FTA에서는 개성공단에 국한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는 '개성공단 한정' 방식의 역외가공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개성공단에 한해 역외가공은 인정하지만, 그 범위와 내용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특징이다. 위 세 협정 모두 개성공단만을 역외가공 인정지역으로 간주하며 기타 추가 지역의 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인도 CEPA의 경우는 남한의 역외가공지역에 대해 '북한의 개성 공업 단지의 9.9㎢ 지역'이라고 해당 협정문에 지도까지 포함해 명시하고 있으며 품목군에서도 HS코드 6단위 기준 108개 상품에 대해서만 역외가공을 인정하고 있다. 한·페루 FTA의 경우는 앞서 말한 지리적 제한 외에도 부속서에 플라스틱 고무, 철강, 가전, 시계, 가구 등 100개 품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에 더불어 한·콜롬비아 FTA와 함께 역내부가가치비율(RVC)의 기준에서 개성공단으로부터의 비원산지재료 투입가치가 그 상품의 가격(FOB)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02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미국, EU, 터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와 맺은 FTA는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으며, 추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는 이른바 '위원회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역외가공지역 지정 기준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역외가공지역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외가공지역 내 일반적인 환경 기준, 노동 기준·관행, 임금 관행, 영업 및 경영 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적성국가로 보고 있는 현실 속에 당분간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 방식은 개성공단 제품이 남한산과 동일한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관점에서는 의미가 충분하나 실효성과 추후 협상에서의 개선 관련 현실성 측면에서는 다른 두 방식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03 개성공단 플러스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은 현재 싱가포르, EFTA, ASEAN, 중국, 베트남과의 FTA에 규정돼 있다. 여기서 '개성공단 플러스'라 일컬어지는 방식은 역외가공 인정지역을 개성공단만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양허 품목의 수나 범위도 보다 포괄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의 경우 각각 '개성공단 또는 한반도의 여타 공업지구'와 '개성공단 이외에 향후 북한에 유사한 공단 설립 시 동일한 혜택 향유 가능'이라고 보다 광범위한 지리적 여건을 허락하고 있다. 특혜대상품목에 대해서도 기존 '한정' 방식에 비해서 매우 발전적인 것이 특징인데,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HS코드 6단위 기준 약 4,600여 개의 품목에 대해, 한·베트남 FTA의 경우 그 품목 수는 기존의 한·ASEAN FTA와 마찬가지로 100개에 불과하나 타결에 앞서 공단 현지 업체들로부터 현재 생산 중이거나 추후 생산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조사, 이를 바탕으로 70여 개 품목을 현실에 맞게 교체·조정한 바 있다.

북·중 관계를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방식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됐던 한·중 FTA의 경우 최근 공개된 영문협정문을 살펴보면 '서명 이전 설립된 북한의 기존 공단에서 생산한 신발, 가방, 장갑, 손수건, 천막, 가위, 보일러 부품 등 310개 품목을 남한산과 중국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중 FTA 대북 역외가공 조항을 협상 초기부터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 이미 중국이 북한에 역외가공지역을 설립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개방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방식

상태	체결국	방식
발효	칠레	해당 없음(개성공단 이전 체결)
	싱가포르	개성공단 플러스
	EFTA	개성공단 플러스
	ASEAN	개성공단 플러스
	인도	개성공단 한정
	EU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페루	개성공단 한정
	미국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터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호주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캐나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서명	콜롬비아	개성공단 한정
협상 타결	중국	개성공단 플러스
	뉴질랜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베트남	개성공단 플러스

글 유영준 관세사(FTA무역종합지원센터 활용지원실)

실전 FTA 활용 노하우: 수입국과 HS코드 상이 시 대처방법

수입국 공식 서류 확보하면 허용… 달라진 HS코드의 원산지기준은 확인해야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380 FTA 콜센터에는 FTA 활용 전반에 대한 상담문의가 오는데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HS코드와 수입국에서 요청하는 HS코드가 상이로 인한 문제로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이같은 다수 민원문의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과의 HS코드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에 대한 처리지침을 2014년에 안내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업체들이 많아 '함께하는 FTA'를 통해 독자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1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코드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1)기관발급 시

FTA 특혜원산지증명서를 기관발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정국으로 수출시 우리나라의 HS코드와 수입국에서 사용하는 HS코드가 상이해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부인되어 특혜통관이 거절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 우리나라와 수입국 간 품목분류가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국의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수입국의 HS코드를 기재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즉, 국내 수출신고필증 상에는 수입국의 HS코드와 상이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HS코드가 기재됐다 하더라도,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에서 사용되는 HS코드로 발급이 가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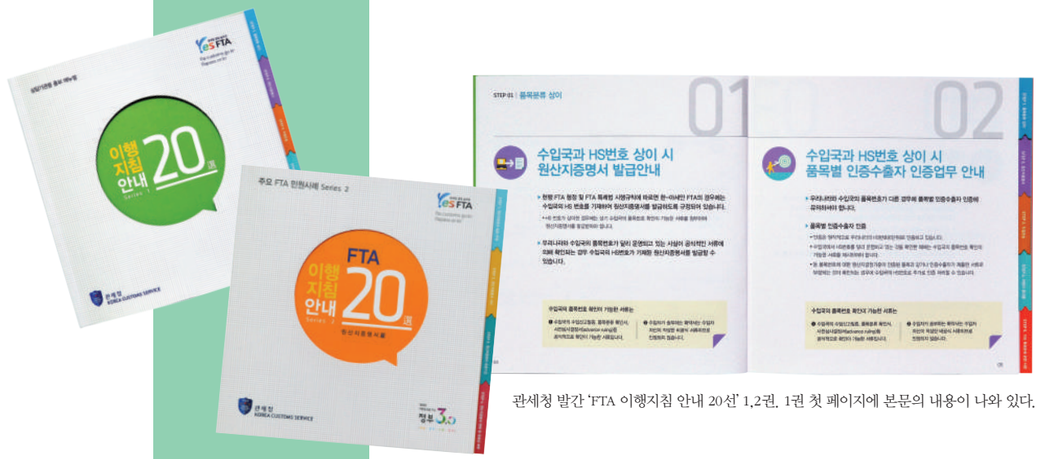
수입국의 HS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국의 수입신고필증, 품목분류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등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자가 송부하는 확약서는 수입자 자신이 작성한 비공식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적용되는 HS코드가 달라짐에 따라 상이한 HS코드별로 각각 정하고 있는 원산지기준에 모두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각 국가별 품목분류 및 관세행정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FTA 활용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지, 사후검증 시 원산지물품 진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사후검증 시 상이한 HS코드에 대한 원산지기준 불충족으로 원산지가 부인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원산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2)자율발급 시

특혜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으로 규정하는 협정(한·미 FTA, 한·EU FTA 등)에서 직접검증을 규정한 한·미 FTA 등의 경우에는 검증의 심사주체가 수입국의 세관이므로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HS코드에 대한 원산지기준에 충족이 돼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율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심사가 없으므로, 수입자가 보다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HS코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수입국의 품목분류에 대한 공식적인 서류를 요청해 보관하고, 요구한 HS코드에 대한 원산지 지위를 판정해 그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관세청 발간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 1,2권. 1권 첫 페이지에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다.

2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코드 상이 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요령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품목별 인증은 원칙적으로 HS코드 6단위로 받는다. 따라서,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HS코드로 운영되는 경우 HS코드 6단위가 상이함에 따라 동일한 물품에 대해 품목별 인증을 다른 HS코드로 재취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입국의 HS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HS코드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이미 인증 취득한 품목과 동일하거나, 동일한 인증수출자가 제출한 서류로 원산지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HS코드로 추가 인증 취득이 가능하다.

수입신고필증 상에 기재된 HS코드라 하더라도 해당 수입국에서의 수리행위가 단순 사실행위로 받아들여져, 수입국에서 사후검증 시 상이한 HS코드에 대한 원산지입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상대국과 HS코드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품목분류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 등 수입국의 유권해석 자료를 요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받은 유권해석 내용과 다름에도 수입자가 요청하는 HS코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글 최효찬 자녀경영연구소 소장(문학박사)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⑤T. S. 엘리엇의 '황무지'

왜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일까?

4월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바로 그 시

황무지 The Wasted Land

–T. S. 엘리엇(Thomas Stearns Eliot)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유지했다.
슈타른베르게르 호 너머로 소나기와 함께 갑자기 여름이 왔다.
우리는 회랑에 머물렀다가
햇볕이 나자 호르가르텐 공원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한 시간이나 이야기했지.
(후략)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April is the cruelest month)…."
매년 사월이 다가오면 T. S. 엘리엇(1888~1965)의 그 유명한 시 '황무지(1922)'에 나오는 이 시구가 절로 생각난다. 누구나 봄바람이 살랑거리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만물이 생동하는 삼월을 맞으면 다가오는 사월을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하곤 한다. 그게 비단 나뿐 만은 아닐 것이다. 마치 주문처럼 중얼거리기도 할 것이다.

엘리엇은 왜 하필이면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 절정으로 접어드는 사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 누구나 한번쯤 이런 의문을 가질 법하다. 초서가 말한 '생명의 4월'이 아니라 '죽음의 4월'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4월이 몽롱한 잠에 취하고픈 욕망을 깨워버리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땅에 묻힌다. 이승에서의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원시인들은 그들의 생명이 죽음에서 생겨난다고 믿기도 한다. 선조들의 영혼이 바로 갓 태어나는 아기에게 들어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엇의 황무지에 사는 현대인들은 부활을 원치 않음에도 만물이 생명력을 되찾는 4월이면 다시 깨어나야 하기에 잔인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는 잠 혹은 죽음에서 깨어나야 한다. 말하자면 나른한 안식을 허락하지 않는다. 은둔자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이다.

이 시에는 고전 문학에서 문장들을 가져와 인용하거나 암유(사물과 사물이 지닌 속성의 유사성을 연결하여 나타내는 비유)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중 '전체 서시'의 처음 부분을 암유한 것이다. 암유의 역할은 주제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고양하는 것이다. 엘리엇은 암유를 통해 이 시의 주제와 암유 사이의 모순과 거리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주제를 아이러니컬하게 만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서의 '전체 서시' 부분의 처음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사월의 감미로운 소나기가
삼월의 가뭄을 속속들이 꿰뚫을 때.

엘리엇은 초서의 시에 나타난 4월의 생명력이 20세기에는 어떻게 죽음의 4월로 변했는가를 감지할 수 있게 이끈다. 따라서 봄이 되어 만물이 소생하고 라일락이 죽은 땅에서 피어나는데도 이러한 봄기운은 환희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아직도 대지를 덮고 있는 잊게 해 주는 눈(forgetful snow)을 오히려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름으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력 있는 모습, 즉 실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커피를 마시거나 잡담을 나누기 위해서다.

슈타른버거 호 너머로 소나기와 함께 갑자기 여름이 왔다.
우리는 회랑에 머물렀다가
햇볕이 나자 호프가르텐 공원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한 시간이나 이야기했지.

엘리엇의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이 역설적인 선언은 프레이저의 '황금 가지'에서 암시를 받았다고 한다. 프레이저에 따르면 이집트 땅에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풍요를 가져오는 나일 강의 범람을 기다리면서 고대인들이 거행했던 풍요의식을 상기시킨다고 한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고대의 엄숙했던 풍요의식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다만 욕망에 들뜨고 좇으며 장엄함과는 거리가 먼, 의식(儀式)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존재할 뿐이다. 즉 봄이 왔는데도 깨어나고 싶지 않고 의식(意識)없이 죽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도시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를 엘리엇은 '생중사(death–in–life)'라고 표현한다.

"이 엉켜 붙은 뿌리들은 무엇인가? 돌더미 쓰레기 속에서 무슨 가지가 자란단 말인가?"

이는 현재 황무지 속에 거주하는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매우 강한 어조로 표현해 보이고 있다. 바로 '생중사' 상태의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엘리엇은 부활 제식을 기괴한 정원 가꾸기(정원에서의 성교)로 바꾼다. 고대인들은 엄숙한 풍요의식 등 종교제의를 거행하지만 현대인들은 기껏해야 정원에서 성교에 탐닉하거나 소소스티르스라는 점성술사를 찾아가 점을 보며 자신의 무미건조한 삶을 연장하려 하거나 하릴없이 행운을 기대한다. 타로카드는 본래 역할이 이집트에서 홍수의 증감을 예언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였던 것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속된 문화의 단편이라 할 수 있는 저속한 운명점에 열중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리석기까지 하다.

'황무지'는 생중사의 모습에서 시작해 "샨티 샨티 샨티(Shantih Shantih Shantih)"로 끝난다. 샨티는 엘리엇이 주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다. 다만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산스크리트어로 인도의 고대 경전인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기독교 문명에 대한 회의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황무지'의 종결부에도 산스크리트어로 "주라, 동정하라, 자제하라(Datta, Damyata, Dayadhvam)"의 표현이 나온다. 단지 기독교만이 아닌, 보편적인 차원에서 '종교적인 구원'만이 인간의 불모성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이 시에는 서양의 성 오거스틴(아우구스티누스), 동양의 부처를 등장시켜 정욕을 버리라고 호소한다.

다시 사월의 도래를 앞두고 있다.
여러분에게 사월은 잔인한 달인가, 생명의 달인가!
살아 있던 그는 지금 죽었고
살아 있던 우리는 지금 죽어간다

이 시구야말로 오늘의 우리에게 가장 울림을 주는 말이 아닐까.

"내게 있어서 이 시는 내가 인생에 대해 갖고 있던 개인적인 불만의 토로이고 그것도 하찮은 불평의 토로일 뿐이다. 이 시는 단지 나의 이러한 불만을 운에 맞춰 시로 써 본 것일 뿐이다." 자, 푸념일지라도 시를 쓰자. 그게 위대한 시가 될지 누가 알랴!

글 이유준 객원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문묘는 원래 공자를
모시던 사당으로, 훗날 베트남 최초의 대학이 됐다.

한국과 닮은 꼴 베트남, 매력적 전통의 뉴질랜드

지구본을 꺼내 한반도를 찾는다. 왼쪽 아래에 인도차이나 반도가 보이고 그 오른편에 위아래로 길게 뻗은 베트남이 보인다. 이번에는 지구본을 오른쪽 아래로 반의 반 바퀴 쯤 빙글 돌려본다. 거대한 땅덩어리의 오스트레일리아 오른편에 두 개의 큰 섬과 수많은 작은 섬으로 이뤄진 뉴질랜드가 보인다. 이 두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지난해 한국과 FTA 협상 타결을 이뤘다는 공통점이 있다.

베트남

토끼띠 대신 고양이띠

한국과 베트남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 같은 동양권 문화에 속해있다는 것, 그리고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 등이다. 두 나라의 문화를 이야기 할 때 중국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전근대 시기, 두 나라는 모두 중국과 조공관계를 맺고 그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 문화가 바로 유교 문화였다. 그런 만큼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문화가 많이 발견된다.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다른 아시아권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베트남은 전통과의 단절에 나서지 않았다. 이는 베트남의 역사가 되풀이된 침략에 대한 저항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그 위에 세워진 전통과 민족주의는 20세기에도 충분히 유효했다. 그 덕에 관혼상제 등을 비롯한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유교적 가치가 잘 보존이 된 편이다.

우선 조상에 대한 제사를 모신다는 점이 같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역시 제사는 민족의 보존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전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밤에 제사를 지내지만, 베트남에서 제사를 지내는 시간대는 보통 낮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베트남에서는 막내 남성 중심으로 제사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한 이웃까지 전부 모여 제사를 지낸다는 점도 한국과 다른 점이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역시 다른데, 베트남에서는 국수 종류의 면, 빵, 과일, 국, 찜 등이 올라간다는 점이 색다르다. 한국에서는 제사가 시작할 때 촛불을 켜고 제사가 끝나면 촛불을 끄는 반면, 베트남에서는 제삿날 하루 종일 촛불을 켜둔다는 것도 다른 부분이다.

재미있는 차이점도 있다. 바로 토끼해가 없다는 점이다. 베트남에는 토끼해 대신 고양이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은 초원문화가 아닌 베트남에서 중국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토끼와 발음이 '마오(mao)'로 같은 데다, 베트남 문화에 좀 더 친숙한 고양이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내용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한문 영역 기초 베트남어 시험지에서 '베트남에는 토끼띠 대신 고양이띠가 있다'는 내용의 문제로 출제되기도 했다.

뉴질랜드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마오리 원주민의 문화가 가진 색다름이다.

뉴질랜드

신화 속 이야기에 빠져보자

뉴질랜드의 국기에는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뉴질랜드하면 서구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로 생각하기 쉽다. '남반구의 영국'이라는 별명도 이 때문에 나왔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는 또 다른 문화, 토속 마오리족의 숨결이 살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기 문화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이 뉴질랜드 문화의 특징이다. 마오리어가 영어와 함께 뉴질랜드의 공식 언어라는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 본 사람들은 이 나라의 문화가 개성 있고, 창조적이며, 독립적이라고 느낀다.

뉴질랜드는 4,000만 마리의 양들로부터 거두는 양모, 양고기, 양가죽이 주요수출품의 하나다. 관광산업 역시 뉴질랜드의 간판 산업이자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매년 250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들이 뉴질랜드를 찾고 있다. 이 배경에는 뉴질랜드가 가진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있다. 뉴질랜드의 관광산업의 구호로 사용되고 있는 '100% 청정 뉴질랜드'는 그들이 가진 자연환경에 대한 자부심을 담고 있다.

자연환경에 더해 뉴질랜드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마오리 원주민의 문화가 가진 색다름이다. 이것은 뉴질랜드 전체를 독특하고 희귀한 문화를 가진 국가로 인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마오리족의 문화는 뉴질랜드 사회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앞선 영어·마오리어 공용어는 그 첫 번째가 될 것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뉴질랜드 국가에도 반영됐다. 이따금 TV에서 방영되는 국가대항 럭비 경기에 뉴질랜드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면, 경기 시작 무렵 마오리어로 1절이 나온 뒤 영어로 된 2절 가사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럭비 경기에 앞서 선수들이 추는 춤이 마오리족의 전투춤인 하카라는 점도 뉴질랜드에 마오리족 문화가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어느 민족이나 그렇듯 뉴질랜드에도 신화가 있다. 뉴질랜드의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토속민족인 마오리족의 신화다. 절반은 인간이고 나머지 절반은 신인 마우이라는 전사가 있었다. 그는 형제들과 함께 낚시를 하기 위해 바다로 나왔다. 하염없이 입질을 기다리던 마우이는 갑자기 물고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엄청난 힘에 놀라게 된다. 그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낚싯대를 들고 안간힘을 쏟다가 간신히 거대한 월척을 끌어 올렸는데, 그것이 지금의 뉴질랜드 북섬이라는 전설이다. 발버둥치는 물고기의 등에 올라탄 탄 마우이는 사정없이 물고기를 두들겼는데, 그 때문에 사방으로 튀긴 물고기의 살점들과 혈흔이 수많은 산과 언덕, 분지와 호수가 됐다는 전설이다.

마우리가 건져올린, 그리고 만들어낸 뉴질랜드의 섬들처럼 마오리족의 문화는 뉴질랜드 전체 문화의 기반을 만들었다. 비단, 유럽의 문화에서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일지라도 마오리족의 문화는 그 숨결을 끊이지 않고 보전하고 있다. 다수에서 소수로 물러나버렸지만, 뉴질랜드의 원주민들은 자신들만의 언어, 생활양식, 의복, 음식문화들을 잃지 않았다. 이것이 뉴질랜드 문화의 핵심이며 또한 강점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정리 이진원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발표

FTA 플랫폼 활용,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도약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을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2월 25일 한·중 FTA 가서명에 발맞춰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한·중 FTA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중 FTA 타결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업종별 의견수렴,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차이나데스크 설치

한·중 FTA를 활용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3월 차이나데스크를 한국무역협회에 설치하고 중국 시장정보 제공, FTA 원산지 증명 관리, 판로 개척,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한다.

②유망품목 발굴

한·중 FTA 유망품목을 발굴·선정해 원산지 관리, 시장 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③신속통관

신속한 통관을 위해 전국 30개 주요 세관에 '예스 에프티에이 차이나센터(YES FTA 차이나 센터)'를 운영하고 '한·중 FTA 100일(가서명 또는 발효 직후) 특별 지원대책'을 준비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④비관세장벽 해소

통관, 시험·인증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애로 해소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관 간 협력회의 정례화,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협력, 지재권 통합창구(IP-DESK) 운영, 비관세장벽 작업반(이행위원회) 설치, 중국 정부(중앙·성 단위)내 우리기업 애로 해소 담당기관 지정 등을 추진한다.

⑤투자유치 확대

FTA 플랫폼을 활용하여 주요 경제권으로부터의 투자를 확대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⑥서비스시장 진출

문화콘텐츠(엔터테인먼트), 환경 등 한·중 FTA를 통해 추가 개방된 중국 서비스시장에 대한 국내기업 진출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를 조성하고 한·중 공동 대기오염방지기술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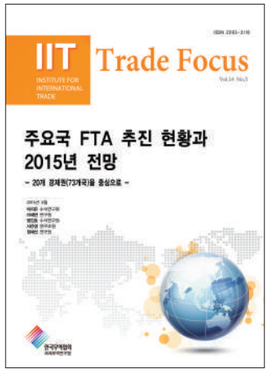
⑦경쟁력 강화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하여 농수산업 미래성장산업화, 제조업 혁신 3.0 추진 및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2015년 상반기) 등을 통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와 아울러 수입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까지 만들어 온 FTA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창의적 아이디어, 투자, 비즈니스가 한국에 집중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발간

73개 주요국의 최신 FTA 동향이 담긴 '백과사전'



한국은 어느덧 미국, EU, ASEAN, 인도, 중국 등 세계 주요 시장과 FTA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제는 시야를 넓혀 다른 나라들의 FTA 체결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 일례로 한국기업들은 생산기지로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최근 베트남과 EU의 양자 FTA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또한 베트남이 TPP 가입국이다 보니 '베트남→미국 수출' 시의 관세도 중요한 검토 항목이다.

이런 정보들을 개인들이 얻으려면 한계가 있고, 누굴 시키기에도 마땅찮다. 그런 의미에서 매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은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매년 꾸준히 찾는 스테디셀러라고 할 만큼 유용한 자료다. 한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나라 73개국의 FTA 현황와 전망이 자세히 나와 있다. FTA 추진은 정치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나라의 선거 일정, 집권당 성향 등 각국 정치상황까지도 기술돼 있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박지은 수석연구원, 이혜연 연구원을 비롯한 5명의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들이 지난 해 12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2개월 넘는 시간을 투여해 만들어냈다. 한국의 경우 'FTA 강국, 코리아' 웹사이트(www.fta.go.kr)에 체결 현황이 발효·서명·협상타결·협상추진 중 등으로 구분돼 잘 정리돼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리 친절하지 않다. 정보가 충분치 않거나 업데이트가 늦은 경우가 많다. 연구원들은 우선 각국 통상 주무부처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했다. 그러면 발효된 FTA는 일단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전 단계인 서명·가서명·협상타결·협상중·협상준비중 등은 쉽게 알 수 없다. 그럴 경우 해당 국가 언론 기사를 샅샅이 뒤진다. 더불어 각국이 소속된 경제블록별 기구들의 웹사이트를 찾아본다. 해당 국가의 FTA 상대국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보가 맞는지 크로스체킹한다. 굉장한 수고가 드는 작업이다. 박지은 수석연구원은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나면 우리도 1년 동안 연구작업에 이 보고서를 백과사전처럼 참고한다. '1년 농사'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www.kita.net)에서 PDF본을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다.

3월에 꼭 챙겨야 할 FTA 세미나

한·중 FTA 중소기업 활용 워크숍

- 일시·장소: 2015년 3월 11일(수) 09:00~17:30(09:00~09:45 등록), 삼성동 코엑스 E-5·6홀(3층)
-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한국무역협회, KOTRA
-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무역협회장, KOTRA 사장, 중국진출기업 등 총 300여 명
- 주제·구성: 한·중 FTA의 이해, 중국 진출전략, 성공사례 소개 등 3세션 구성
- 참가비: 무료
- 참가신청: 통상산업포럼(한국무역협회에서 링크 가능)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k-cfta@ioconvex.com) 또는 팩스(02-3401-2572)로 접수
- 문의전화 02-2152-5057

한·호주 FTA 발효에 따른 수출전략 세미나

- 일시·장소: 2015년 3월 19일(목) 14:00~16:40,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주최: 한국무역협회·주한호주상공회의소 공동주최
- 주제·구성: 한·호주 FTA 활용방법, 한·호주 간 서비스분야 협력 방안, 호주시장 정보 및 수출·투자전략 등 3강연
- 참가비: 무료
- 참가신청: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 상에서 직접 참가신청(3월 17일까지 접수, 선착순 마감)
- 문의전화 02-6000-5274

※위 세미나들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웹사이트(홈화면 → 협회소개 → 협회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함께하는 FTA'는 FTA의 필요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기보다 국민들에게 FTA가 가져올 문제의식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FTA가 거론될 때면 원산지관리가 하나의 세트처럼 따라오는데 전문가 칼럼을 보면서 원산지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FTA 피해의 심각성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현희(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FTA가 되면 관세 없이 물건을 수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준비할 서류도 많고 특히 원산지증명서를 꼭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하는 FTA'를 읽으며 알게 됐습니다. 대기업도 이런 부분에 취약하다고 하니 하루 빨리 보완하고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선희(충남 서천군 서면)

한·중 FTA가 요즘 초미의 관심사인데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FTA도 성공해 새로운 경제발전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뛰어난 디자인과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고품질의 샤워헤드를 생산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출사례를 읽으면서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상덕(대구 달서구 장기로242)

2015년 공대에 입학하는 예비대학생입니다. 졸업 후에 취직해야 하는데 군대포함 6년 후에는 직업 전선에서 FTA를 실감나게 느낄 것 같군요. '함께하는FTA'를 통해서 많이 배워둬야겠습니다.
송유진(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30길)

한국이 맺은 FTA가 국경 없는 경제와 교역의 역사를 새로 써가는 것 같아 달마다 열심히 보고 있어요. FTA 취약분야가 다들 농수산업 이라고 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발한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농수산식품산업이 미래의 유망 수출산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송경민(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 남극의 중요성

- 자구환경 기록 보존소 : 눈, 얼음, 퇴적물, 암석의 기록 보존
- 환경변화 연구의 최적지 : 지구의 기후제작소, 지구환경 변화의 척도
- 천연과학 실험장 : 대기권, 빙권, 지권, 수권, 생물권의 복합 상호작용
- 자원의 보고 : 수산자원, 석유, 가스, 광물자원 등 다량 부존 추정

| 장보고과학기지 역할

- 남극 대륙 기반 연구(빙하, 운석, 오존층, 극한지 공학) 수행

| 장보고과학기지 준공 이후 1년간의 성과

- 인근 기지 국가들과 국제 협력을 통한 안정적 기지 운영 시스템 정착
- 우주운석 탐사, 화산활동 관측, 고층대기 관측 등 우리나라 연구 영역 확장
- 해양(세종과학기지)과 대륙(장보고과학기지) '남극 종합 연구체계' 완성
- 국제 공동연구 확대를 통해 극지 선도국 도약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KOPRI 극지연구소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www.motie.go.kr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국내외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가공해 제공